

여성의 성적 주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 성경험을 통한 의식 형성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조 윤 정

안 계춘 교수님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조 윤정 드림.

여성의 성적 주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 성경험을 통한 의식 형성을 중심으로 —

지도 조 혜 정 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95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조 윤 정

조운정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5년 12월 일

우리말 줄임글

여성의 성적 주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 성경험을 통한 의식 형성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1990년대 한국이라는 매우 독특한 조건 속에서 여성들의 성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초점은 여성의 성이 경험을 매개로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 맞추어졌다. 이 연구는 개인의 내면에 있는 의식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심층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20대 대졸 여성으로 삼았는데, 이는 이들이 성, 사랑 및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고할 연령층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논문의 구성은 성 지식의 형성 과정과 성경험을 통한 주체성 형성 과정으로 나뉘어진다. 성 지식의 형성 과정은 다시 금기화된 성 문화, 그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의식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재정립되는지를 논의한다.

내면화된 순결의식은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지하는 것을 가로막고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게 한다. 드러낼 수 없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교육과 성추행의 경험을 토대로 여성은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 이와 더불어 성에 대한 이야기의 금지로 인해 여성은 성적 무지 상태에 묶이게 된다.

동일하게 순결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성은 성경험을 갖게 되고 어떤 여성은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 경험의 여부에 따라 두 유형 간에는 뚜렷한 성 의식의 차이를 나타낸다.

목 차

성에 대하여 일정한 선을 긋고 있는 여성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인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고하며 욕구의 절제를 통해 만족감을 얻는다. 성경험에 대한 이들의 회피는 대부분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손익계산에 바탕하여 이루어진다. 반면 성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순결의식과 자유로운 사고 간의 불일치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며 경험 이후 자기 정당화 과정을 통해서야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단계에 도달한다. 그러나 수동적이고 습관적인 성행위, 또는 임신과 낙태에 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성에 대한 자율성의 확보는 어려워진다.

여성의 성에 대한 주체성 확립은 경험이라는 계기를 통해 시작되며 자기 정당화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이러한 정당화 과정에 진보적 문화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동료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 등의 요소가 개입함으로써 성에 대한 여성의 알이 확대되고 그것이 성적 주체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접촉이 제한된 경우에는 경험이 주체성 확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다른 한편으로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들에 접촉한다 해도 그것이 직접적인 자기 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주체성 확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역시 많지 않다.

★ 핵심어: 순결 이데올로기, 내면화 과정, 성의식, 성경험, 성적 주체성.

우리말 줄임글	2
I. 문제의 제기	4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7
1. 이론적 배경	7
2. 선행연구의 검토	11
3. 분석틀과 연구방법	13
3-1. 분석틀	13
3-2. 연구방법	14
III. 여성의 성 - 지식화 과정	17
1. 1990년대 한국 여성의 성	17
2. 금기시된 성	21
2-1. 성교육과 순결교육	21
2-1-1. 성교육	21
2-1-2. 순결교육	23
2-2. 비성적(非性的) 관심의 대상 - 남성	27

2-3. 육체의 억압	29
2-3-1. 드러낼 수 없는 몸	29
2-3-2. 성추행을 통한 부정적인 성인식	30
2-4.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의 신화	32
2-5. 불감증의 문화	34
3. 금기시된 성 '이야기'	39
3-1. 은밀한 이야기 - 성	39
3-2. 닫힌 이전 상태에 묶어두기 - 성적 무지	45
IV. 성경험 - 적응 혹은 이탈	55
1. 혼전 성경험의 유보 - '선'긋기	55
1-1. 정상·비정상의 구분: 절제	55
1-2. 현실적인 계산	60
2. 혼전 성경험	64
2-1. 첫 경험	64
2-1-1. 바라지 않은 유혹의 결과	64
2-1-2. 자기 정당화과정	68
2-2. 여성의 성적 주체성	69
2-2-1. 남성중심적인 성, 습관적인 성행위	69
2-2-2. 수동적인 성관계	71
2-2-3. 안전하지 못한 피임 - 임신의 두려움	72
2-3-4. 적극적인 성경험	74
V. 결론	80

참고문헌	84
Abstract	89

표 및 그림 목 차

<표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16
<그림 1> 여성의 성적 주체성 형성과정	14

I. 문제의 제기

우리에게 성은 가장 관심있는 일 중 하나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관심한 듯 숨겨야 할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청소년 시절 만화방이나 영화관을 들락거리거나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에 관한 지식들을 떠벌이면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철저히 어른들의 시선 밖에서 이루어져야만 했다.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를 한번 보기 위해서는 극장 밖에서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재빨리 들어가야만 했다. 아이들 앞에서 떠벌이던 성지식이란 것도 한밤중에 방문을 걸어놓고 습득하던 것이 대부분이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을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크게 변화한 듯 보인다. 1990년대를 특징짓는 굵직굵직한 사회적 논쟁들은 주로 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펜트하우스 국내 시판 논쟁을 비롯하여, 벗기기 연극 논쟁, 배꼽티 논쟁, 신세대 논쟁과 동성애 논쟁, 그리고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섹스 논쟁 등 90년대라는 시대는 도대체 성을 배놓고는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90년대는 이러한 논쟁들을 통하여 성이 오랜 암흑생활에서 벗어나 밝은 하늘 아래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대로 기록될 수 있을 듯하다. 더구나 X세대로 지칭되는 20대 초반 젊은이들의 성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¹⁾나 신세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답았다는 '체즈'와 같은 TV 드라마를 보면 우리 나라에서도 성적 자유의 신장이 매우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와는 별도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아직도 '순결 이데올로기'의 존재는 완강하게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결혼과 결부되지 않은 성에 대하여 도덕의 칼날을 들이대는 이 이데올로기는 언제나 여성을 공격의 대

1) 1992년 한화제약이 미혼남성 5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비롯하여 여성월간지 <FEEL>과 연예 종합 월간지 <VIEW>에서 그리고 1995년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남녀 대학생의 성의식이 조사되었다.

상으로 삼고 있다. 여성들은 “계집아이가 밥늦게 다니면 못쓴다!”며 순결을 설교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으며, “그 여자 처녀냐?”라는 남성들의 질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순결을 목숨과도 바꾼다는 부모세대의 주장에 은근히 반발해 보기도 하지만 순결을 잃으면 내 인생은 끝장이라는 두려움을 쉽게 떨어버리지는 못한다.

성적 자유가 인정되는 듯한 사회 분위기,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움아매고 있는 순결 이데올로기. 이러한 모순된 조건은 성에 관한 여성들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물론 과거에도 혼전 성교와 같은 말은 낯선 용어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당사자나 타인들에게 모두 ‘죄’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식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을 겪을 필요는 없었다. 단지 욕망을 최대한 억누르는 것이 문제였을 뿐이다.

반면 현재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성격은 그것과는 좀 다른 듯이 보인다. 자신의 욕망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순결 이데올로기가 심어놓은 피해의식 간의 충돌 내지는 불일치가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특히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과 관련해서 엄청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으로 여성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행위에 대한 거부감 동료집단으로부터 ‘형편없는 아이(또라이)’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1990년대라는 매우 독특한 조건 속에서 여성들이 지닌 성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밝히기 위해 씌여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여성들의 성의식 형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혼전 성관계야말로 위에서 기술된 순결 이데올로기와 성적 자유 간의 불일치한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의 능동적 의식형성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혼전 성관계를 둘러싸고 그것에 대한 거부와 동의, 또 관계를 가졌을 경우 그 이전과 이후의 의식의 차이 및 그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여성들이 자신의 성경험과 성에 대한 의식 간의 괴리를 어떻게 중재시키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 논문에서 중시하는 것은 순결 이데올로기에 대한 태도이다. 여성들이 자신의 성경험을 다룸에 있어서 순결 이데올로기와 대결은 불가피하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의 순결의식이 형성, 강화되는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살펴본다. 또한 행위의 결정에 있어서 순결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행위의 결정 이후 순결 이데올로기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본다. 그럼으로써 여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지의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지적하고, 1990년대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여성이 성적 주체성을 갖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논의될 것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연구의 관점과 그 과정 및 방법이 논의된다. 여기에서는 이 연구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상의 특징, 그리고 연구방법상의 문제를 논함으로써 연구 방향의 대강을 설정한다.

제 3장에서는 여성의 성행위와 의식을 결정짓는 초기 사회화과정을 다루면서 여성으로 하여금 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서 여성이 성에 대한 관심과 성문화와의 접근 가능성으로부터 어떻게 소외되는지가 논의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여성에게 어떤 결과가 야기되는지를 알아본다.

제 4장에서는 개인의 의식 속에서 의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순결 이데올로기가 구체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개인에게 억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억압을 인식한 개인이 다시 그것에 대응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연애평정 중 성행위를 거부 또는 유보하거나 성관계를 결심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과정들에 개입하여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는 어떤 것들인가, 순결 이데올로기와 성적 욕구 간의 갈등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며 어떻게 해소되는가의 문제를 보여줄 것이다.

제 5장에서는 1990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배경속에서 여성이 성적 주체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논의하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장에서는 우선 성적 주체의 개념을 '몸에 대한 자기결정'이라는 것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좌절되는 사회적 관계의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주체성 형성 가능성을 모색해 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1. 이론적 배경

성이란 무엇인가?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성은 남녀의 생식기 즉 성기와 그 생물학적 차이를 지칭하는 성 sex, 또는 이 생물학적 성의 차이에 따라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차이 - 남성다움 혹은 여성다움의 규정 - 를 일컫는 성 gender 이 아니라, 성적 행동, 성욕, 또는 성본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추상명사인 성 sexuality 이다²⁾. 16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성 sex 이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남성집단과 여성집단 간의 엄정한 분할(즉 성적 차이)과 관련된 말이었다. 그러나 이 말은 19세기 이후부터 이성 간의 육체적 관계 즉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기 시작한다(Weeks, 1986).

그러나 성에는 이러한 용어정의 만으로는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명확한 대답을 어렵게 만드는, 쑥스럽고 쪼끄러운 무언가가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모호하면서 여러가지 개념들이 한꺼번에 들어 있어서 핵심을 끄집어내기 어려운 어떤 것이다. 1990년대 우리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그것은 남몰래 비밀스럽게 자꾸 들여다보고 훑쳐보고 싶게 만드는 것, 술한 농담을 만들고 유통시키는 것, 한편으로는 아주 중요한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하찮은 것으로도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의미가 과잉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과소한 삶의 체험이며 조건이다.

실제로 성이 함축하고 있는 이런 모호함과 다의성은 수많은 연구자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더구나 종교적 전통에 입각한 사회적 규범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을 은밀하게 감추어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였기 때문에, 규범을 다루는 사회과학의 시야에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배제되어 왔다. 성은 단지 자연과학의 일부

2) '성'이라는 말이 갖는 다양한 의미에 관해서는 Foucault(1991)를 참조할 것.

로서 생물학적 관심 속에서만 연구되어 왔을 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선구적인 연구자들은 성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그것의 비밀을 밝히려는 연구성과들을 축적하여 왔다. 그 가운데서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근대적 성의 출현을 알린 성 과학 Sexonomy 이다. 크래프트 어빙, 하브록 엘리스,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위시한 19세기 말 - 20세기 초의 성 과학자들은 과학적 수단을 통해 성의 실체를 발견하고자 했다.

이 중 프로이트는 성 과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성을 바로 그것 이외의 다른 목적 - 출산 - 에 대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발상, 즉 성에서 나오는 쾌락은 오직 부산물에 불과하며 지나친 쾌락은 '비자연적'이라는 발상을 뒤엎는데 공헌하였다. 그에 의하면 성관계는 반드시 이성 간의 관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생식기를 통한 성만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 육체의 모든 부분이 생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다 같이 성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성의 본질을 생리적 '긴장 완화'의 측면에서만 바라봄으로써 그것의 '정신적인 측면', 즉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한 부분으로서의 성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Nagel, 1975; Solomon, 1975).

성 과학의 개념과 이론은 성의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구분하는 카테고리를 제공함으로써 성교육과 결혼지침서, 성 상담, 성 치료법 등의 토대가 되었고 성 통제의 정교하고 다양한 기술을 고안하는데 기여하였다(Weeks, 1985). 이들은 이성 간의 성관계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권력관계에 의해 불가피하게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예속을 특징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이들은 여성을 '페니스가 없는 인간 - 결핍된 존재'로 파악함으로써 남성중심의 성이라는 신화를 낳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든 형태의 비정상적 성을 성 본능에 의한 정상적인 행위의 확대라고 봄으로써, 남성의 성적 일탈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성을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에 입각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성을 어떻게 통제하고 욕구를 어떻게 승화시키느냐를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성 과학의 이러한 통제중심적 시각은 곧 여러 형태의 문제제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찰스 푸리에 Charles Fourier 와 에드워드 카펜터 Edward Carpenter 등과 같은 사회주의의 선구자들이나 빌헬름 라이히 Wilhelm Reich나 허버트 마르쿠제 Herbert Marcuse 같은 프로이트 마르크스주의자들, 그리고 알프레드 킨제이 Alfred Kinsey 같은 성의학자들이 성 연구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의 이론은 서로 간에 적지 않은 차이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명에 의해 억압된 성적 자유'라는 전제를 공유하는 것들이었다(Weeks, 1986).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성 과학은 보다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택하게 된다. 매스터즈 W. Masters 와 존슨 V. Johnson 은 임상실험을 통하여 남성과 여성의 오르가즘을 연구했으며, 킨제이 A. Kinsey 는 면담방법을 통하여 성행동의 범위를 연구하였다.

1960년대 이후에는 철학 및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으로서 성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마르쿠제 Marcuse 를 비롯한 비판철학의 영향과 여성해방운동의 물결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마르쿠제(Marcuse, 1968)는 인간의 성이 성기중심적으로 국소화되는 것은 생물학적 필연성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국소화는 특정한 지배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미리 책정된 기술과 생산체제에 맞추어 인간을 통제하는 도구로 성을 이용하는데, 이는 상업적 섹스의 대중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사회계급들을 유사한 생활스타일에 동화시킴으로서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를 통하여 자본주의의 인간관계는 섹스관계로 전락하고 만다(Marcuse, 1968). 이에 대하여 그는 '성적 에너지'를 회복하고 그것을 성애나 성교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넓은 차원, 즉 인간의 동지적 결속이나 공동체적 유대감으로 승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여성해방론에서는 성관계를 보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인간관계가 힘의 관계로 엮여진 광의의 정치적 관계라고 할 때, 성관계도 역시 성의 정치학이라는 개념으로 분석될 수 있다(Millet, 1970). 밀레트 Millet 는 성

의 지배가 우리 문화 속에 가장 널리 편재해 있는 이념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우리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권력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처하는 종속적 지위를 부권제가 여성에게 부과한 조직적인 무지로부터 설명한다. 이는 성적인 측면에서도 드러나는데, 성관계에 있어서의 여성의 수동적 위치는 성과 성관계를 지식화할 수 없는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은 인간의 특별한 행위영역이거나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관습적인 사회생활의 한 부분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이론들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가봉 J. H. Gagnon, 사이먼 W. Simon, 플루머 K. Plummer 등의 상호작용론, 라캉 J. Lacan이나 미첼 J. Mitchell 등의 정신분석학 그리고 푸코 M. Foucault 등의 이론가들에 의해 채택되고 있다. 이들은 성을 사회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구성물로 보는 특성이 있다.

상호작용론에서는 성적 행위를 특정한 문화적·역사적 조건 속에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는 것으로 본다(Plummer, 1982). 라캉 Lacan 역시 그것이 후천적으로 습득된다고 보는 점에서는 상호작용론과 줄기를 공유한다. 그에 따르면 성이나 성욕, 심지어는 인간의 무의식마저 개인과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언어의 상징적 질서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그에 있어서 성이란 여러 요소들의 관계이며, 관습과 행위에 부여하는 일련의 의미이자 나름의 역사를 지닌 사회적 장치인 것이다. 푸코 Foucault 에게 있어서 성은 권력의 함수이다. 그는 성의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성은 단지 '억압'의 메카니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규정하는 권력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조직되어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은 권력이 통괄하려 드는 일종의 자연적 소여라거나 얹어 점차 벗겨내고야 말 모호함의 영역으로 생각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 구성물에 부여될 수 있는 이름이다(Foucault, 1973).

이들의 관심은 여성의 성이 억압적인 사회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변화하는 양상에 놓여있다. 성생활을 규제하는 형식적 방법들은 종교, 국가, 도덕 등의 형태 변화

에 상응하여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다양한 형태는 각각 여성의 성이 영위되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응한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폭스 Fuchs 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

이 모든 것, 그 속의 특수한 것, 이 이전과는 전혀 정반대의 것이 각각 특정 시대에 의해서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사실이다. 사물을 과학적으로 고찰하는데 있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왜 그랬는가 라는 문제이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요컨대 사회도덕의 전체적인 차이는 시대와는 관계 없는 우연의 소치가 아니며, 시대의 모습으로부터 제멋대로 배제해버릴 수 있는 우연도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차이 속에서 일반 사회생활의 저류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과 그 저류의 필연적인 결과를 발견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모순된 여러 현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주 정연한 질서가 있다(Fuchs, 1986).

폭스 Fuchs 가 역설하듯이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여성의 성은 1995년 한국이라는 시공간적 틀과의 연관 속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은 ‘사회생활의 저류를 형성하고 있는 흐름과 그 질서’를 파악해냄으로써만 대답될 수 있는 것이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우리 나라의 성문화 연구는 서구에 비해 매우 느리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 왔다. 장필화와 조형(1989)은 이러한 조심스런 진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공식적 담론에서 성이라는 주제가 금기시되고 생략되어 왔

3) 폭스(Fuchs, 1986)의 연구는 이 방면에서 독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는 점이며, 둘째는 성에 관한 연구가 학문적 연구로 인정되기는 커녕 흥미위주의 주간지 기사거리로 전락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여성학 내부의 경향으로써, 여성문제를 설명하는데 있어 노동과 생산의 요소가 성과 출산의 요소에 우선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성문화 연구와 관련하여 이처럼 국내 학계의 정체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기존에 다루어진 주제들은 대부분 성에 대한 태도(박금산, 1982; 홍준숙, 1987; 송재희, 1988; 공미혜, 1993; 이숙경, 1993; 이경미, 1994), 여성의 출산(이미경, 1989; 정경자, 1990; 임순영, 1991; 이숙경, 1993; 조영미, 1994), 그리고 여성의 성적 피해(심영희, 1989; 김선영, 1989; 이명선, 1989; 박선미, 1989; 이상화, 1993; 이재경, 1993)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중 출산과 피임 및 여성의 성적 피해에 관련한 논의들은 주로 남성중심의 성규범이나 순결 이데올로기 등을 통해 여성이 받는 직접적인 피해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의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미혼 남녀의 성의식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서는 혼전의 성관계와 결혼에 대한 태도 등이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다시 성도덕 문란의 차원에서 논의된 연구들(박금산, 1982; 홍준숙, 1987; 송재희, 1988)과 개인과 사회규범 간의 갈등의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들(공미혜, 1993; 이숙경, 1993; 이경미, 1994)로 크게 대별된다. 이 연구에서 관심있게 보는 것은 후자에 해당하는 연구들이다.

먼저 이숙경(1993)의 논문은 현재 한국의 여성이 놓여있는 문화적 상황, 특히 성, 사랑, 그리고 결혼이라는 문화적 각본에 얽매인 여성의 현실을 낙태라는 경험을 매개로 잘 드러내 준 연구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낙태경험이 있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성관계 이후 여성이 지니게 되는 성에 관한 부정적 태도가 지나치게 부각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경미(1994)의 연구는 순결 이데올로기를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고 성적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성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경우 여성의 성관계 수용여부를 순

결 이데올로기의 수용과 거부로 지나치게 이분화하여 단순화한 측면이 없지 않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흔히 연구자의 주장이 지나치게 앞섬으로써 현상의 다양한 면모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이경미(1994)의 경우 마치 순결 이데올로기의 수용과 거부 경험 이전에 이미 이루어져서 그에 따라 혼전 성관계 여부가 결정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현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경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의식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경우 여성들은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한 유혹의 결과로 성을 경험하게 되며 그 이후에 정당화 과정을 통해서 성에 대한 의식이 재구성된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부장적 구조에 순응하는 이들과 거부하는 이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의지나 준비 면에서 차이를 나타낸다(이경미, 1994)고 보는 것도 다소 지나친 주장으로 보인다. 여성의 평등적 사고나 성에 대한 자유가 경제적인 자립에 바탕한 것임에는 분명하나, 이것이 여성의 순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행해져 온 많은 연구들은 순결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순결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 대상으로 보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어떤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진 것인지가 먼저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90년대의 상황에서 순결 이데올로기는 그 지배방식을 바꾸어서 여성을 억압한다. 순결 이데올로기는 불변의 추상적 실체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능수능란하게 모습을 바꾸는 카멜레온같은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순결 이데올로기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즉 문제는 순결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억압적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여성을 어떻게 억압하는가에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여성의 성에 대한 지식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이 혼전 성경험을

유보 혹은 수용하는 과정을 이해하려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제약조건들 속에서 순결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항목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며, 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성 억압의 구조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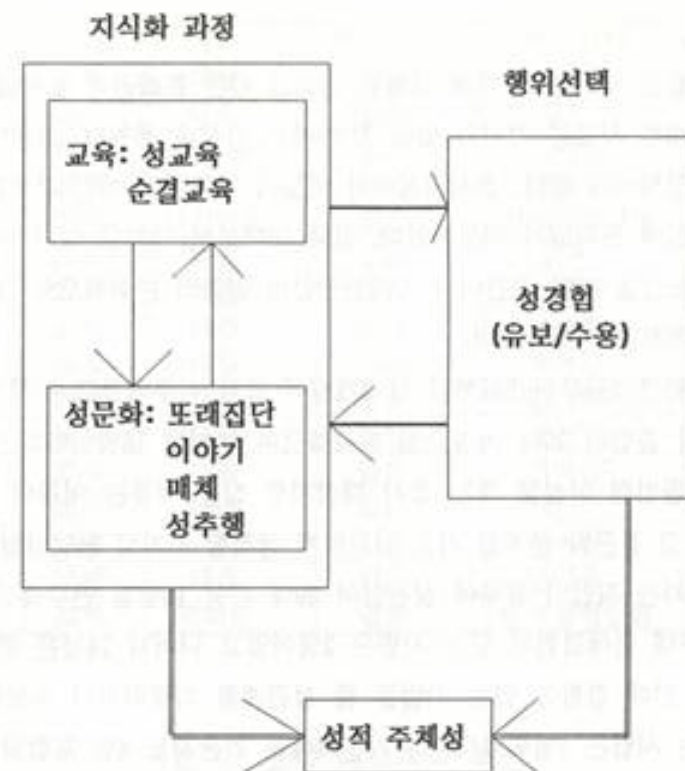
3. 분석틀과 연구방법

3-1. 분석틀

이 연구에서는 성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배경적 변수와 주체적 변수의 상호작용 속에서 밝히려 한다. 배경적 변수는 공식적·제도적 측면인 성교육과, 비공식적 부분인 성을 둘러싼 문화, 즉 담론, 매체 그리고 성추행의 경험들로 이루어진다. 주체적 변수로는 혼전 성경험에 대한 수용과 거부를 채택했다.

이러한 분석틀을 통해서 이 연구에서는 성의 의식화, 지식화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혼전 성경험에 대한 행위가 선택되며, 혼전 성경험의 수용과 거부의 과정을 통해 성의 지식화와 의식화 과정이 다시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과정은 또한 개인의 순결에 대한 사고와 태도가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아울러 포착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분석틀을 통해서 이 연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여성의 주체성 형성을 가로막는 요인들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요인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위 문단에서 나열했던 설명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여성의 성적 주체성 형성과정

3-2. 연구방법

이 논문의 관심은 개별 여성들의 내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의 요소를 포착하기 쉬운 질적 연구방법이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은 면접과 참여관찰이 중심이 되는 문화기술적 연구방법 Ethnomethodology 이며 그 가운데서도 심층면접법 in-depth interview

method 이다.

연구의 가설은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나오고 같은 문화권에 놓여있는 여성들은 성에 대해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러나 그러한 가설은 이내 수정되어야 했다.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너무나 상이한 경험과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결국 20대로써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여성들의 성의 모습을 어떤 편견이나 가치판단없이 일종의 문화지도로 그려보자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은 변경되었다.

조사는 1995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조사 대상자는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20대 여성으로 한정했으며 인원은 16명이었다. 20대로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여성을 주된 조사 대상자로 삼은 이유는 이들이 처한 시점이 성, 사랑 그리고 결혼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할 시기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는 직업의 유무에 상관없이 20대 여성 16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들 가운데 연애평험이 없는 사람은 2명이었고 나머지 14명은 연애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유보한 사람 7명, 성경험이 있는 사람은 7명이었다. 이 가운데에는 기혼자도 4명 포함되었는데, 혼전 성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각각 2명이었다. 조사 대상자에 기혼자가 포함된 것은 미혼의 성행위 결정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함이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도 주로 결혼 이전의 성에 대한 질문이 먼저였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아래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설문은 가능한한 이들의 의식에 깊숙히 접근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항만을 명시한 개방형 설문을 사용하였고, 면접방식도 폭넓은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도록 했다. 소개를 통해 사전에 조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면접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런 정보 없이 면접이 실시되었다. 성은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하기 힘든 프라이버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에 앞서 논문의 목적과 면접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내용은 조사자들의 동의 하에 녹음되었다.

	나이	학력	혼전 성경험	현재상태	직업유무
사례 1	27세	대졸	있음	연애중	없음
사례 2	28세	대졸	있음	결혼	있음
사례 3	23세	초대졸	있음	연애중	있음
사례 4	28세	대학원졸	있음	연애중	있음
사례 5	25세	대학원졸	없음	연애평험없음	있음
사례 6	28세	대졸	없음	결혼	없음
사례 7	27세	대졸	있음	결혼	없음
사례 8	27세	대졸	없음	연애중	있음
사례 9	26세	대졸	있음	헤어짐	있음
사례 10	26세	대졸	없음	새로연애중	있음
사례 11	23세	초대졸	없음	약혼	있음
사례 12	27세	대졸	없음	연애중	있음
사례 13	28세	대졸	있음	결혼	있음
사례 14	23세	초대졸	없음	헤어짐	있음
사례 15	28세	대졸	없음	연애중	있음
사례 16	22세	재학중	없음	연애평험없음	있음

<표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III. 여성의 성 - 지식화 과정

1. 1990년대 한국 여성의 성

1990년대를 사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성과 사랑에 대하여 매우 대담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이러한 세간의 평가는 여러 사회조사들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1994년 4월에 대학생 1천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한국사회문화원의 설문조사는 이러한 류의 조사로서 전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혼전 성관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수가 전체의 64.1%에 이르렀으며 프리 섹스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도 25.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견해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견해가 남학생의 경우 28.8%, 여학생의 경우 7%였고, 남학생의 19.5%, 여학생의 42%는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이러한 조사결과만을 토대로 한다면 90년대의 젊은이들은 성에 대하여 상당히 개방적이며 앞선 세대들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성적인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이러한 류의 조사들은 남성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어떤 여자라도 성관계를 갖기가 수월해졌다'는 환상까지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우리는 언론에서 제시하는 각종 조사결과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면서도 내심 미심쩍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의 주변풍경에서는 프리섹스주의자를 발견하기도 힘들고 결혼에 무관심한 사람을 찾아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1994년 4월 3일에 방영되었던 KBS-TV <추적 60분 - 대학생의 동거>에 대한 반

4) 이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다른 조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사저널』 95년 3월 16일자는 성 의식에 관한 여러가지 조사의 결과를 잘 요약하고 있다. 또한 장필화와 조형(1991)의 논문도 참고할만 하다.

향과 그 이후 전개되었던 일련의 사태는 이러한 미심쩍음이 근거있는 것임을 입증해 준다. 방송 이후 동거 밀집지로 거론된 몇몇 대학에서는 '우리는 깨끗하다'는 취지의 궤기대회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학생들은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라며 대부분 언급하기를 꺼리는 모습이었다(양난주, 1994). 이는 소위 신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혼전 성관계는 '깨끗하지 못한 일' 또는 '일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임을 보여준 사례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현상은 과연 어떤 배경에서 나타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월간 사회평론 - 길』에 실린 한 학생의 인터뷰는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궤기대회에) 모인 사람들 중엔 4학년 학생들이 제일 많았어요. 직접 피해를 보니까요. 교생실습 신청을 하러 중고등학교에 갔더니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올해 취직은 다 틀렸지요 뭐(양난주, 1994).

실제로 이 방송 이후 한동안 이들 학교에서는 "○○대 여학생 시집가기 다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떠돌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 특히 미혼여성들의 성을 철저히 금기시하고 단죄하는 사회 통념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 순결 이데올로기라고 불리는 이 통념은 평상시에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잠복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나타나서 여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 따라서 미혼여성의 성행위에는 그로 인해 자신에게 부가될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결단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90년대 들어 성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영화, 연극, 광고 등과 같은 대중매체를 힐끗 쳐다보지만 해도 단박에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과장되어서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성을 가지고 한 몫 잡아보려는 상업주의자들이나 마치 지금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듯 요란을 떠는 보수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도 대다수의 미혼여성들은 조신(?)하고 정숙(?)하게 살고 있다. 순결 이데올로기는 그 위력을 조금도 위협받을

이 없이 의연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순결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으로 성에 대한 개념과 그에 대한 행동규범의 형태로 사람들의 의식 및 사고를 통제한다. 그것은 규범의 내면화를 통한 문화적 제재, 일상 생활에서 가족이나 동료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통제, 그리고 사법기관에 의한 공식적 통제 등 겹겹의 통제수단들을 통하여 개인에게 행동의 테두리를 그어준다(이영자, 1989). 그것은 단순히 '나이든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서는 것이고 한두마디의 반항적 언사로 변경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순결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제도화된 힘으로 작동한다. 즉 물질성을 지닌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선택하기 가장 손쉬운 길은 그것의 힘에 굴복하는 것이다. 여성은 그것에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써 위반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

거부감이 들때도 있죠. 당연히. 근데 뭐랄까, ... 처음에 틀에 딱 갇혔을 때는 아 싫다, 싫다, 싫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그 틀이 견고하다 보면, 그리고 계속 그 틀 안에 있다보면, '그래 나는 이 틀 안에 있어야돼' 하는 생각이 딱 박혀버리잖아요. 그런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틀에서 약간 벗어나면 몰아치치는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파도가 몰아치듯이 겹겹으로 몰아치는 어려움, 그런 건 좀 격기가 심은 생각도 있죠. 혼전순결두 그런거 같아요. <사례 16>

사정이 이렇다면 이 장의 서두에서 제시되었던 설문조사의 결과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단지 허풍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게 볼 수만은 없을 듯하다. 그것이 과장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과소평가되어도 곤란할 듯 싶다. '신세대' 또는 'X세대'라는 말로 상징되는 문화적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성 의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남자같은 여자', '여자같은 남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서슴없이 배꼽을 내놓고 다니거나 길거리에서의 키스를 주저하지 않음으로써 어른들을 놀라게 만든다.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독특한 행동

방식이 지극히 폐쇄적인 우리 사회의 성 의식에 적지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은 확실하다.

요즘애들은 많이 다른 것 같애. 열린 공간에 놓여있고 계기가 쉽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죄의식이 없어졌어. 배낭여행이나 영화, 그림, 댄스얼풍 등이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 같아. 동생이나 동생 친구들은 나와 3살 차이인데도 내 친구들과 많이 달라. 나는 오히려 동생이나 동생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 얼마전 동생 친구가 임신을 해서 낙태수술을 했는데 미역국도 끓여다 주고 그랬어. 동생 친구중에는 경험이 없는 애가 별로 없어. <사례 1>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열린 공간, 영화, 여행 등의 문화적 환경변화가 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주어지는 자유로운 분위기, 다른 한편으로 성의 소비를 조장하는 상업주의의 영향도 이러한 변화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여유로운 생활, 집안, 공간이 주어지는 문제도 있고. 여유있고 그런 집안 사람들이 유학갔다 오는 애들이 많잖아요. 유학 갔다온 그런 애들에게 여자애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많이 끌려가는 거 같아요. 고등학교를 외국에서 보내고 대학을 들어와서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TV나 이런데서 더 조장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남들도 그런가보다 그러면서 더 그러고. 그런것 같아요. <사례 11>

유학생 문화와 같이 특수한 젊은이 문화는 그 특수함으로 인해서 젊은이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며 여기에 상업주의 언론이 가세함으로써 그 특수함은 어느덧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게 된다. 그리고 대학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진보적인 문화와 여성학 등의 교육은 성적인 자유에 대하여 윤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유로운

성 의식으로의 변화를 가속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떠들썩한 말잔치에서 잠시 물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내 주변에 변한 것이라곤 지극히 보잘것 없음을 알게 된다.

“아주 개방적인 사람은 잘 못봤어요. 제 주변에는 찾아보기 힘든, 어디에 그런 사람들은 다 숨어있는지, 야하다고 해서 개방적인 것은 아니더라구요. 그건 상관없어요.” <사례 7>

이 절에서는 젊은이의 성과 관련한 90년대의 문화적 변화를 스케치해 보았다. 90년대란 급격한 변화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그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은 수많은 혼돈과 갈등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직은 그 변화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난점은 성에 대한 이중적 의식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여성들이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의 개방이나 성의 자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막상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절들에서는 이들의 이러한 이중성이 생산되는 과정을 그들의 의식성장 및 사회화 과정과 연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2. 금기시된 성

2-1. 성교육과 순결교육

2-1-1. 성교육

조사대상 여성들은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 학교에서 배운 성교육과 슬라이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의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단지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있다는 기억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었다. 도대체 어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토록 아무 기억도 남기지

못하는 것일까?

황은자(1993)의 분석에 의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 성교육은 체계적이지 못한 채, 단지 성폭력 방지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⁵⁾ 분석에 따르면 성교육의 내용은 신체발달과 성역할 교육에 중점을 두고있으며, 성차별을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정당화하고 있다. 즉 여학생에게는 ‘월경, 임신, 출산 그리고 순결’이 교육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반면 남학생에게는 ‘성생활과 성병’이 주로 교육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보면 여학생에게도 당연히 관심거리가 되는 성생활이라든가 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함양과 같은 것은 전혀 교육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빠진 성교육이란 생물학과 같은 극히 지루한 시간이 되기 일쑤이다.

공식적 수준에서의 성교육의 결핍은 비공식적 수준에서라도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정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주로 부모의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비공식적 성교육에 있어서는 공식적 성교육의 경우에서보다 결핍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부모들은 대개 자식에게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를 민망한 일로 여기거나 아예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성교육은 단지 위험 방지의 차원이거나 피해의식을 주입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렇지도 않을 경우에는 성이란 ‘저절로 알게되는 것’이라는 식의 방치가 일반화된다.

특히 엄마 아빠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딸이 셋이거든요. 엄마가 딸만 셋을 키우다보니 엄마 스스로도 별로 깊게 생각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마 오빠가 있었거나 그랬으면 어떤 주의

5) 황은자는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의 『성교육 지침서 - 교사용(1983)』,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성교육지침서 - 지도자용(1984)』, 한국청소년 연구원의 『지금 데의 아이는 - 부모 교육자료(1990)』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는 이 자료들이 성교육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용도가 높고 가장 최근의 것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라거나 이런 걸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자들만 있으니까. <사례 11>

부모로부터 받는 대부분의 성교육은 성에 대한 태도나 사고를 형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 구성되어왔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성교육이 없다는 사실이 단지 남자형제가 없다는 가족 구성원의 특수성 때문으로 돌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남자형제가 있는 경우에도 성교육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영화를 볼때, 성적인 표현이나 장면이 나오기라도 하면 딴 이야기를 꺼낸다든가 아이들을 방으로 내쫓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관심을 돌리는데에만 익숙해 있다.

가족들끼리 있다가 TV에서 키스신이나 베드신, 그런 것 나오잖아요? 그럴 땐 갑자기 웃고 떠들다가 침묵이 짝 가라앉아요. 니네들은 보지 말라는 것을 침묵으로 암시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딱 돌려서 딴 얘기를 시키든지, 아니면 웃으면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막 회피하는 거죠. <사례 16>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로 등장시키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자식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혼날거야'라든가, '그러면 엄마가 날 의심할지도 몰라'라는 식의 생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모르는 척 하는것이 습관화된다. 그러나 딴 얘기를 하면서도 아이들은 힐끔힐끔 화면을 훑쳐보며, 자기 방에 돌아와서는 온갖 종류의 비디오나 소설들에 탐닉한다. 이러한 사실을 부모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의 입에서는 단지 '너는 저러면 안된다'라는 식의 설교만이 튀어나올 뿐이다.

결국 공식적 수준에서건 비공식적 수준에서건 성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있는 것이라곤 오로지 순결교육 또는 순결에 대한 설교 뿐이다. 아주 어릴 때부터 여성들은 성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한다. 그들의 의식 속에 성은 부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순결 뿐이다.

2-1-2. 순결교육

오랫동안 성교육은 '순결교육'의 이름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남녀평등의식이 고조되면서 여성만의 순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성교육'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름이 바뀌었다고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다. 성교육 지침서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 상대방이 얼마만큼 여성을 존중하며, 그 관점의 방향이 안정된 것인지 확인하라.
- 성적 흥미를 조장시킬 만한 환경이나 기회는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여 그런 분위기는 적극 피하라.
- 그런 경우 상대방의 관심과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딴 것으로 바꾸라.
- 밤 늦게 귀가하지 말라.
- 호젓한 곳으로 끌려 들어가지 말고 발길을 옮기라.

이러한 지침서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니고 있다: 남성은 성욕이 강하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하고, 여성은 무분별한 남성들의 성충동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경계를 해야한다. 즉, 남성은 가해자이고 여성은 피해자이다. 또 이러한 상황을 피하지 못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결국 이러한 교육의 목표는 성욕을 남성에게만 귀속시킴으로써 여성을 성욕이 없는 존재로 만들고, 성행위를 마치 폭력이나 절도와 같이 두려운 행위로 형상화함으로써 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 성교육은 순결의식의 주입에 있어서 단지 부차적인 역할만을 담당할 뿐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부모, 그 중에서도 어머니에 의해 행사된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 누구의 이야기보다 편하게 받아들여진다. 어릴때부터 즐기게 순결에 대한 어머니의 설교를 들어도 막상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다. 그저 "또 그런 소리 하는구나" 내지는 "엄마는 구세대니까" 하고 간단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설교는 자기도 모르게 내면화되어 결정적인 순간에 위력을 발휘한다.

부모의 순결교육은 연애가 본격화될 무렵이 되면 더욱 강해진다.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게되는 것이다.

엄마는 딸만 다섯인 우리들에게 항상 강조하셨어. 여자는 유리그릇과 같아서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가 어렵다. 남자를 만나면 으스스한 짜장면 집 같은데는 가지마라. 그 말이 언제나 마음 속에 남아있었던 것 같애. <사례 1>

엄마는 '순결해야 한다'라는 말씀만 하셨지. 몸조심해라. 그런 말만 들었어. 민망스럽겠지. 연애 1년 이상 되니까 첫 남자가 마지막 남자라야 된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맨 처음엔 엄마가 별로 엄하지 않았거든. 사귀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엄해지시더라. <사례 6>

어머니의 이야기는 여성의 가치관 성형의 유무에 달려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몸을 망치면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와 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할지도 모르며, 어머니처럼 '양말 바는 구정물에 손을 담그고 평생을 살아야할지도 모른다'고 가르친다.

어렸을 때 엄마의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연애하면 안 되고 때되면..., 다 갈 때되면 가고, 연애도 할 때되면 하는 건데 지금부터 그러면 안된다. 엄마꼴 난다. 연애도 못해보고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가지고 속옷 빨고 막 더러운 양말 빨고 그랬다는 것만 자꾸 심어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례 14>

이처럼 어머니의 말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데 테두리를 치게 해 준다. 자신은 어머니와는 다른 식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이상, 어머니의 말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된다. 앞날에 대한 걱정은 어머니와 같은 방식으로 살게 되면 어쩔나 하는 걱정과도 연결되는데, 이는 어머니를 통해 전달되는 지배문화의 협박에 다름아니다. '손에 매니큐어 바르면서 마사지하고 기사와 식모가 딸린 집'에서 살려면 순결

을 지키고 때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엄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좋은 집에 시집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순결 이데올로기는 여성으로 하여금 성을 유일한 가치결정요인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 왔다. 즉 순결의 상실은 결혼시장에서 결정적으로 여자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다. 여자가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는나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그가 순결을 지키고 있는나의 여부이다. 따라서 이혼시에 여성에게 주어지는 '위자료'는 가사노동의 댓가가 아니라 처녀성 상실의 댓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이영자, 1989: 99).

어머니들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들의 세대가 풀어내어야 할 과제를 풀지 못한채 다음 세대인 딸에게 떠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조혜정, 1991: 40).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봉건주의적 통제를 당하면서 개인적인 주체로서의 삶의 가능성이 없었던 시대를 살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일탈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형성된 이러한 사고방식에 의거하여 자식들의 열린 가능성을 부정하고 구속과 협박을 통해서라도 통제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제에 대한 부모의 집착은 곧 그들의 불안감의 표출이며 이는 때때로 자식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나이가 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날에 대한 걱정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했어도 안했어도 그렇게 감추고. 그렇게 되더라구요. 근데 솔직히 매니큐어 바르면서 마사지하고 그러고 살고 싶지, 매일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고 살고 싶지 않잖아요. 너는 좋은 집에 시집가야 된다고, 식모 있는 집에 시집가야 된다고 하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말 안듣고 그러면 "빨리 시집가. 엄마가 아무나 데리고 와 보내줄게." 말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나고, 안된다고 나는... 운전면허 따라고 그러면 운전면허 왜 따냐고 기사두면 된다고.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데 제가 하는 농담은 뼈가 있는 농담이거든요. 그렇게 그런 집에 시집가고 싶지 않으니까. <사례 14>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부모의 생각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한다. 순결을 지키는 것을 내면화하고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기로 결심한 경우의 대다수는, 자신이 순결을 지켰을 경우 부모가 자신들의 지위나 부를 매개로 그에 걸맞는 맞선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있는 능력을 지닌 경우이다. 이 경우 자식들은 부모가 제시하는 대상이 친구의 소개나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대상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졌을 거라는 확신을 갖는다.

많은 여성들은 결혼에 직면해서 지극히 현실적으로 되며, 이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연애 상대와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만일 이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선택을 관철하려 한다면 경제적 자립이 중요해지는데, 부모에게서 받아왔던 풍요는 일탈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한다. 결국 여성들은 부모에게 굴복하고 만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정직하고 내가 깨끗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갖춰놓게 있으면 그만큼의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자기 짝이 있긴 한데 어차피 막나가는 애들은 막나가는 애 만나게 거고, 내가 조심하게 있으면 부모님이 소개시켜주더라도 떳떳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례 14>

이처럼 이들은 쉽게 어른들의 세계속으로 편입된다. “어른들이 하는 말, 하나도 틀린게 없어”라든지 “떳떳하게 사는 길은 순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라는 등의 말들은 최면술사의 주문과 같이 이들의 뇌리 속을 돌아다니게 된다. 그러면서 이들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혼에 있어서의 정직함이란 처녀성을 지키면서 조심하게 기다리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위의 <사례 14>와 같은 경우이다. 얼핏 고루하기 이룰데 없거나 그야말로 촌티가 팍팍나는 여자로 생각되기 쉬운 이 의견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부킹과 나이트 문화에 익숙한 전형적인 신세대, 소위 ‘한참 잘나가는 오렌지’에 속한다. 더구나 그는 친구들로부터 ‘성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을만큼 성에 대한 이야기를 즐

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신세대에 대한 어떠한 단순한 평가도 경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문화적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이들 영악한 신세대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바와는 달리 순결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욱 클 수도 있다.

2-2. 비성적(非性的) 관심의 대상 - 남성

성에 대한 관심의 억압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적 대상을 비성적(非性的)으로 인식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만든다. 이는 자신들에게 주입된 교육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고 그들 나름대로 성적인 관심을 표출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사춘기 무렵이 되면 남성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지하기 시작하는 반면, 여성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남성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남성을 ‘비성적(非性的)’인, 다른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연예인에게 열광하거나 선생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여성들에게는 흔한 일이다. 이에 대해 에렌라이히는 그의 책 『비틀즈 마니아: 소녀들은 즐겁기를 원한다』에서 비틀즈 팬들이 열광하는 것을 억압된 성적 에너지의 표출이라고 분석한다⁶⁾. 그에 따르면, 소녀들에게 대중 스타가 지닌 매력의 하나는 그들이 그 스타와 결코 결혼하거나 잡자리를 같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녀들은 사회적으로 자신들에게 강요되는 성적인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스타에 대한 환상을 즐길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억압된 성적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남성에 대한 이러한 ‘비성적’ 관심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차별화 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우리와는 다를 것이다’ 또는 ‘우리과 다른 우정을 지녔을 것이고 우리와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가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오빠나 남동생들과 자신이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6) 시사저널 1995. 3. 16. p. 96에서 재인용.

나는 그때 성이란 거 보다는, 이성이라는 그런 거 보다는 내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봤던 건 우정이라는 그런 거 였거든. 남녀간이 아니라 여자친구들 간의 우정인데 사실 국민학교때부터 남자애들은 너무 예쁜 우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들은 그런게 별로 없는거야. 그래가지고 “난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남자애들을 볼 때 뭐 이성이나 이런거 보다는 그냥 참 부러웠던 거 같애. <사례 15>

내가 남자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남자들은 여자들과 다를 거라는 생각에서였어. 여학생들이 그때 편팔팔마를 하거나 남자친구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거에 관심이 일단 없었어. TV에 일단 관심이 없었어. 드라마나 그런게 나는 낮은 차원의 얘기라고 생각을 한거야. 왜 좀더 격조높은 얘길 못하는가. 남자들은 일단 다를 거다. 개네들은 정치얘기를 할거다. 인생얘기를 할거다 그런 생각을 한거야. 그런 호기심이 굉장히 강렬했어. 우리는 씨름활동을 어느 남학교랑 조인트를 했었는데 그래서 남자와 접촉할 기회가 공식적으로 생긴 거지. 알고봤더니 남자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나는 선생님을 되게 좋아해 갖고 저 선생님이랑 결혼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한테 깊은 감동을 주는 사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 사랑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나이든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어. 사회적으로나 생각 면으로 나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 그런게 굉장히 컸었고. <사례 4>

남녀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은 ‘난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라고 느끼게 되는 박탈감, 또는 남자친구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계집아이들의 이야기는 ‘낮은 차원’의 이야기로 생각되게 되는 열등감으로 여성들을 몰고 간다. 그들은 ‘남자들은 좀더 격조 높은 정치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히면서 그러한 측면에서 남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여성들의 이러한 성향은 자신보다 우월한, 존경의 대상으로서의 남성을 찾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래의 남성과의 만남이 단절된 남녀유별적 분리공간에서 여학생들이 표현할 수 있는 욕구란 이 정도

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은 대부분 ‘우상’들의 연애나 결혼 등으로 곧 깨어지게 된다.

여성들의 초기 사회화 과정에는 이처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대나, 존경스럽고 감동을 주는 흡모의 대상을 사랑하는 단계가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들이 자신이 처한 조건에서 성적 열망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오빠부대의 열기는 이들의 성적인 답답함과도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2-3. 육체의 억압

2-3-1. 드러낼 수 없는 몸

어린시절부터 성기나 몸을 보여주는 데 익숙한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의 몸은 언제나 감추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누가 볼라. 빨리 옷입자. 여자가 부끄럽게!”라는 말을 듣고 자란 여성들은 언제나 몸을 움츠리고, 신체적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 한다.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숨겨야 하는 것, 부끄러운 것, 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이원영, 1991: 219-220).

이러한 부끄러움이 내면화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팔목을 꼬집는 등의 벌을 주는 것(중고등학교에서 남자선생들은 이런 벌을 주곤 했다)은 불쾌함과 동시에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수치심 때문에 여학생들은 임신한 여성들이나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온 여학생들을 보면서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집에만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7) 물론, 이는 나이가 많은 남성이 그렇지 못한 남성과 비교해 볼때 부의 축적이나 안정된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수도 있다. 부스(1994)는 여성이 결혼상대의 조건으로 남성의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그리고 나이를 꼽는 것은 그러한 조건을 갖춘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수세기의 진화과정을 통해 여성의 생존과 생식의 적응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여성들의 많은 경우가 나이나 능력면에서 그들보다 나은 결혼상대자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여성들이 산부인과에 대한 기피증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산부인과 진료의 관행들이 여성을 주눅들게 만들기 때문(김효선, 1992: 101) 이라거나 출산과정이 여성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의 배제한 채 생산도구라는 느낌을 받게 하기 때문(김예령, 1995: 312)이라는 등이 분석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학교때 가슴이 조금 커지면서 아픈거야 아프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밥을 먹으면서 “재가 밥송이처럼 나온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수치스러웠던 것 같애. 왜냐하면 그 당시는 굉장히 민감하니까. 몸이 변하는 상황에서 몸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 특히 남자들이 이야기하는걸 막 싫어했어. 체육 선생님이 저질스러운 농담을 하면 ‘저질!, 저 애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했지. 특히 남자 어른들이 그런말을 하면 못마땅해 했어. <사례 4>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한 이래 여성의 몸은 두가지의 의미를 부여받아 왔다. 하나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몸이고 다른 하나는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서의 몸이다. 그 외에 여성의 몸은 어떠한 의미도 지니지 못해왔다.

성과 관련하여 여성은 성적 주체가 아니라 성적 대상일 뿐이므로 스스로의 몸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부도덕한 일로 취급되어 왔다. 따라서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들여다보는 행위는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금지되어 왔다. 그것은 적당한 시기가 되면 남자의 손에 의해 개봉되어야 하는 비밀스러운 것이며 그것에 손을 대는 것은 일종의 신성모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념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남아서 여성의 행동을 크게 위축시킨다.

특히 여자들은 성생활을 할 때 자기 알몸을 드러내야 되고 그런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는데 처음에는 그걸 끝까지 못 했고. 나중에 그 친구는 그렇게 어떻게 서로 의식은 형성되어 있었고 그것이 어떤 새로운, 내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의식이

랑 아귀가 맞아떨어져서 그렇게된 것 같아요. <사례 10>

남성과 여성이 서로 자신의 신체를 전면으로 드러냄을 근거로 하는 성관계의 경우 여성은 이불을 덮거나 재빨리 옷을 입는 것으로 몸을 가린다. 따라서 그러한 수치심을 깨는다는 술한 시간과 상황들이 요구된다. 많은 시간을 돌고 돌아야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은 이러한 부끄러움을 끝끝내 극복하지 못한다. 부끄러움은 몸을 움츠리게 하고 긴장하게 만든다. 여성이 자신의 몸을 알지 못하면 사실상 몸의 즐거움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은 끝까지 성으로부터 소외된다.

2-3-2. 성추행을 통한 부정적인 성인식

성기노출증 환자를 보는 일은 여성들에게 특이한 경험이 아니다. 문제는 성에 대한 교육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성에 대한 불쾌한 경험으로 다가온다는 데 있다. 성기노출증 환자들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린아이나 사춘기의 소녀이다.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여자아이를 상대로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경험은 여성들의 사고에 오래도록 남아, 남성의 성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심한 경우 남성 일반에 대한 공포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해소할 통로가 막혀있을 경우에는 결국 스스로의 성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방식은 그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다. 즉 성추행의 경험은 ‘공포스럽고 무서운’ 일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자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건 정신병자의 행위일 뿐, 내 남편이나 내 애인은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멀더라고 생각함으로써 그들은 애써 마음을 가볍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저분하고 불쾌’한 경험이라는 기억은 씻을 수가 없다.

성기노출증 환자는 어렸을 때는 못 봤는데 대학교 때 한번 봤거든요. 너

무 싫더라. 너무 놀랐었지. 참 지저분한 느낌이었어요. 전철이나 버스에서 그렇게 한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기분이 나쁘죠. <사례 12>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자주 당하게 되거나 그것을 특별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 억압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진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경험에 대한 혐오가 모든 남성에게로 확대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애인의 삶이 닿는 것조차 불쾌하고 싫은, 성 자체가 더러운 것으로 생각되는 내면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비록 성적 접촉이 손잡기나 간단한 애무에 그칠지라도 이 경우의 여성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짐승같은 행위로 인식된다. 결국 여성은 성에 대한 혐오감과 애인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끊임없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내 기억에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다녔을 때 정도였어요. 소꿉장난 같은 걸 하고 막 놀 때 성병환자 같은 사람을 많이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되게 놀랐어요. 남자라는 구조에 대해서 본 적이 없다가 너무나 신기하니까. 너무너무 이상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옛날에 학교다닐때도 사람 많은 전철을 타면 10분에 7-8번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전철타기가 너무 싫어서 일찍 서둘러서 버스타고 가고 지금도 회사 되게 일찍 오거든요. 전철에 사람이 많으면 안타요. 지각을 하든지 말든지. 너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많이 봐 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사례 11>

이러한 상황은 성에 대한 닫힌 답론 구조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경험을 한 여성들은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풀어버릴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부모들은 자기의 자식들이 곱게 자랐다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자기 자식들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버린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처할 어떠한 지식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결국 여성들은 불쾌한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모든 것을 혼자서 껴안고 참으면서 사는 것이

제일 무난한 길이기 때문이다.

성추행을 통한 불쾌한 경험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늦게 성에 눈뜨도록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성추행은 그것을 경험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도 강한 파급효과를 미친다. 이러한 사건이 아무리 드물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위에서 이러한 사례를 접하게 되면 여성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면서 몸을 움츠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교나 부모에게서 배웠던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도식은 여성의 의식 속에서 현실성을 갖게 된다. 그럼으로써 여성에게 성은 피해가야 할 대상으로 고정화된다.

2-4.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의 신화

여성들에게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있지만 없다'이다. 여성의 성에 대한 관심은 중고등학교시절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성적인 느낌을 억압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적 호기심이나 욕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억압은 성적인 욕구를 낭만적 사랑이라는 신화적 형태로 바꾸어서 표현하도록 만들며, 일단 형성된 이 신화는 여성의 모든 성적 열망을 자기 안으로 흡수하여 그것이 여성 안에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든다.

또래 집단 속에서 여성들은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활발히 나누지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로맨틱한 사랑에 국한된다. 언제나 오가는 이야기는 '누구누구의 남자친구는 잘 생겼더라', '공부를 잘 한다더라'하는 정도이다. 간혹 이성과의 성적 접촉- 손을 잡았다든가 키스를 했다든가 - 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하지만 이를 자신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일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그는 '밝히는' 애로 취급되면서 집단 내에서 유별난 존재로 대우받게 된다.

여성들이 꿈꾸는 플라토닉한 사랑은 성적으로 순수한 사랑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애인의 전화를 하루종일 전화통 알아 앉아 기다린다가, 애인이 보고 싶은 군인이 탈영을 한다거나, 부모가 결혼을 수락하지 않자 동반자살한다는 류의 것들이 여

성들이 그리는 사랑의 모습인 것이다.

사랑은 불확실한 감정 같아요. 난 그사람을 사랑해. 난 누구누구씨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뭐 사랑의 도피행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 인생을 걸고 도박하는거 같아요. 낭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잘되면 따는거고 안되면 본전도 못찾는거. 사랑이 그런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례 16>

우연한 기회에 몸을 통해 성적인 느낌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사랑의 감정과 연결되는 것이라고는 깨닫지 못한다. 여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기고 싶다는 센치한 기분과 성적인 몸의 느낌은 별개의 것이다. 이는 여성들의 의식세계 속에 자신의 성적인 느낌을 풀어낼 여취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로맨틱한 감정으로 성적인 느낌을 전환시키면서 거부감이 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남성들이 자위를 통해 성적인 욕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해소하는 것과 는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몸에서 성이라는 걸 느낀 건 중 3때 였을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리를 꼬고 앉아있으면 뭔가 이상하게 찌릿찌릿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였어요. 성적 충동이라고 하면 좀 우습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기고 싶다는 정도였고, 정말로 어떤 신체적인 몸의 느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전 첫사랑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저 남자한테 안겨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건 그때였죠. 그냥 여중고생들이 느끼는 정도의 센치한 기분인것 같아요. <사례 10>

첫사랑이 시작되고 자신의 몸에 대해 악하게나마 느끼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는 성이 뭔가 낭만적이고 신비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 시기는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죽음도 뛰어넘는 비현실적인 사랑, 첫눈에 반해버리고 눈이 머는 사랑, 자신에게만 애정을 퍼부어주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단계

에서 비로소 성에 대한 조금씩의 긍정적 인상이 형성된다. 그러나 이들이 느끼는 성과 사랑이란 로맨틱한 것일 따름이지 임신이나 낙태와 같은 끔찍한 현실이 아니다. 이들이 접하는 영화나 소설 어디에도 낙태나 임신에 대한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여성들이 성에 대해 어렵게나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걸 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낭만적인 감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관계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원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었어. 왜냐하면 모든 걸 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근데 금방 결혼하고 애낳고 그러대. 그런 걸 보면서 신비가 많이 깨지대. <사례 4>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기고 싶다'거나 '내가 사랑하는 만큼 모든걸 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짝사랑'의 경우에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현실성을 결여한다는 점에서 낭만적 사랑의 극단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낭만적 사랑 역시 여성의 성적 관심을 다른 쪽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결국 여성의 자아형성을 가로막는 기제로 작용한다. 낭만적 사랑의 신화를 통해서 여성은 자신의 자아를 직시하지 못하고 단지 남성의 사랑에만 의존하여 사는 수동적인 존재로 키워지게 되는 것이다.

2-5. 불감증의 문화

여성을 성에 대한 무지상태로 묶어두는 전략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그것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는 것이다.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은 여자아이가 성과 관련된 문화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관심을 고립시킨다. '정숙하고 안전한 아이는 성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아이'라는 것이 여성들의 내면에 공식화된다. 모범생과 불량학생을 구분하는 선은 성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느냐 - 그것을 표현하느냐 - 의 여부에 따라 그어

진다.

(영화를 보거나 왜 주말의 영화를 본다거나 그런적 없어?)

그때는 TV를 못보게 했어.

(누가?)

엄마가. 고등학교때는 봤었을 거 같애. 영화를 볼 때면 좀 이상하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뭐 해보고 싶더라든가 경험하고 싶더라든가 이런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고.

(그것도 안봤어? 하이틴 로맨스 이런것도?)

그런 것도 안봤어. 나는 그런 거 보면은 나쁜 앤줄 알았어. 그런 것들 참 못봤던 것 같애. 불량학생인줄 알았다니까. 바보였어 바보. 근데 그런것들 봐두는 것도 지금은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 몰라 일찍 성에 눈뜨면.. 일찍도 아니지 고등학생이면. <사례 15>

성과 관련된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대부분 10대 중반 이후에 주어진다. 이 시기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이미 비정상적이고 저속한 것으로 성이 내면화된 이후이기 때문에 성적인 문화에 접할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스스로 거부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호기심의 억압은 보고 싶다는 욕구가 애당초부터 자기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여성들은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여성의 성행위 장면을 보았을 경우 무엇보다도 먼저 “저러면 안된다”는 생각부터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이러한 여성들도 성 문화에 접할 기회를 적지 않게 잡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이 경우에도 역시 그런 가능성이 ‘날라리’ 친구들에 의해 제공된 것이라고 내면화한다. 즉 그런 행위에의 참여에 있어서 자신은 소극적이었다거나 친구들 때문에 마지못한 것이었다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고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한다. 그들에게 ‘날라리’라는 말은 자신과는 다른 별종의 인간을 지칭하는 기호로 사용되는 말로서, 자신의 부도덕에 대한 좋은 핑계거리로 이용된다.

중학교 정도 들어갔을 때부터 애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야한 비디오 빌려다보자. 업마 없을 때. 보긴 봤는데 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한가봐요. 별 느낌 없었어요. 그냥 잤어요. 저는. 제 친구들은 좀 노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는 안 그랬는데 제 주변에 날라리, 소위 막 가출하고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팅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했어요. 그때도 나는 공부 잘 하고 그런 애 아니면 소개도 안 시켜주고... ‘너는 그러면 안돼’, 부모님이 워낙 완강하게 그러시니까 애들이 먼저 감싸주더라고요. 친한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뭐 얘기는 들죠. 그랬니? 그러면서 어땠어? 그러면 어떤 애들은 소위 속된 말로 ‘뽕간다. 멋있었다.’ 이런 애들도 있었고, ‘그저 그렇지 뭐. 아무 느낌 없었어.’ 그런 애들도 있었고. <사례 14>

위의 사례에서 소개된 여성은 중고등학교때 친구의 집에 모여서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인 ‘뽕’이나 ‘무릎과 무릎사이’ 혹은 ‘애마부인’ 시리즈 등을 보았으며, ‘그 당시로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미팅을 하고 나이트를 다닌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날라리 문화’에 접하고 싶은 욕구와 그러면 안된다는 욕구가 혼재해 있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위의 여성은 선택적 동화의 전략을 채택한다. 즉 미팅을 한다든가 나이트를 가는 등의 비교적 ‘성’과의 연관이 적은 것에 한해서는 날라리 문화와의 동화를 선택하는 반면, 직접적인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발을 빼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가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나는 친구들과 다르다. 즉 성에 대해 무감각하다’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나 친구들에게나 모두 주효했다. 즉 그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친구들로부터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게 된다. 친구들은 그에게만은 ‘공부잘하고 집안이 좋은 애’를 소개시켜주는 등의 우대를 하게 된 것이다. 그는 친구들과의 이러한 차별화를 통하여 자신의 순결을 유지한다. 이 때 엄한 부모는 전략적으로 동원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대가는 지속적인 성의 억압이며 의식과 행동의 분열이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야만 하며

자신의 욕망을 부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위의 경우와는 달리 성문화에 대한 접근에 적극적인 친구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도 성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들은 그 어디에서도 성에 대해 배우지 못한채 성에서 풍겨나오는 로맨틱한 분위기에 안주해 버린다. 처음에 이들은 새롭게 발견된 이 세계에 빠른 속도로 빠져들지만 언제나 그 소리가 그 소리인 책들에 이내 식상해 버린다.

저는 주로 그런 쪽으로는 학구파여서 백과사전도 찾아보고 그리고 소녀 잡지가 저 중학교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서 성 상담 코너도 보고. 친구들보다는 조금, 제 친구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건 아닌데 제가 좀 많이 알려주는 편이었죠 주로. 지금도 사무실에서는 제가 꼭잡고 있잖아요. 이성 자체보다는 성적인 접촉이나 여자들의 구조라든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죠. 잘 몰랐으니까 어렸을 때는, 『하이틴로맨스』 많이 봤죠. 중학교 2학년때 나왔거든요. 한 열권정도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서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사례 9>

이러한 상황은 남성들과 비교할 때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남성들 역시 공식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비공식적인 성문화에 접할 기회가 쉽게 주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통로를 통해 접해진 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성들의 경우에 비해서 훨씬 강렬하게 개인을 사로잡는다. 왜냐하면 남성들의 세계에서는 성이 공통의 관심사로서 비중있게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육체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은 성경험이나 성 지식을 풍부하게 지닌 아이일수록 동료집단에서 우대받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남자 아이는 더욱 성에 대하여 몰두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몰두는 몇몇 아이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더욱 강화된다. 성에 대한 관심을 노출하는 것이 동료집단에서의 고립으로 나타나는 여성들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상이성으로 인하여 남녀간에는 성적 관심의 해소에 사용되는 매체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남성들이 주로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 등 시각적인 욕구를 직접적으로 만족시켜 주는 것들에 탐닉하는 반면, 여성들은 주로 성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보다는 그에 대한 은유적이고 환상적인 표현을 위주로 한 만화나 소설 등을 주로 접하게 된다. 하이틴 로맨스나 멜로 영화, 그리고 여성지 등으로 대표되는 '여성매체'들은 위 <사례 9>의 여성이 말한 것처럼 '성적인 접촉이나 여자들의 구조라든가 그런거'에 대한 관심을 결코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한 월간 여성지에 실린 바 있는 남녀간의 대화(주부생활, 1995)를 보면 성장기에 나타나는 남녀 간의 문화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오(남): 학교때 성 교육시간이 있었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선생님들은 성적 충동을 취미나 스포츠로 풀어야 한다는 아주 도덕적인 말씀만 하셨죠. 이미 교실에는 포르노 잡지가 비치되어 있고 아이들은 그것을 다 보았는데도 선생님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만 한 셈이죠.

이(여): 포르노 잡지가 교실에 비치돼 있었다고요? 어떻게 그럴수 있죠?

오(남): 물론 선생님들은 모르게 교실 마룻바닥을 뜯은 후 넣어두는 거죠. 대학에 입학한 후에야 비로소 남자와 여자의 차이, 인간의 성행위나 여성의 배란시기, 피임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지만 그것도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황(남):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생리대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정자와 난자에 대해 배웠지만, 그것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는 몰랐죠. 궁금했지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는 여쭙보지 못했고 친구들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포르노 잡지나 사진, 비디오는 여전히 인기높은 교재예요. 컴퓨터 통신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단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들만 가득해요.

결국 남성들에게도 공식적인 성교육은 비현실적이고, 비공식적인 성담론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여성들에 비해서 성에 접할 기회가 보다 개방되어 있으며, 이들의 관심은 또래 문화를 통해 더욱 활성화된다.

반면 여성이 접하는 성문화와 그에 대하여 여성들이 보이는 태도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소극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성에 대한 호기심을 처음 느낀 거는 국민학교 3학년때 『캔디 캔디』를 읽고 테리우스와 캔디가 키스를 하는 장면을 보고 아 저게 참 좋은거구나 나도 언제 꼭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이틴 로맨스 이런 거 전 전혀 안봤어요. 주말의 영화같은 건 봤죠. 근데 저는 섹스 장면이 아름답게 느껴졌고, 그게 참 성스러운 일이구나, 이렇게 느끼진 않아도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눌만한 어떤 미적 의식으로 ... 에코소설 『장미의 이름』을 영화화한 걸 보면서 느꼈어요. 중고등학교때 입장불가 영화를 보러 간적도 한번도 없고 그래요. 그 영화는 입장불가는 아니었는데 『작은 신의 아이들』이라고 병어리 여자와 교사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친구들과 시험 끝나고 보러 갔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때가 그랬는데 애들이 야하다고 굉장히 더러운 듯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자기가 병어리고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육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한적은 있어요. <사례 10>

여성들의 경우 성적인 관심은 키스 정도에 머문다. 영화를 보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영화의 장면이 주는 에로틱한 분위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성을 구체적인 성관계로 인지하기 보다는 그 분위기로 인지한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달리 포르노를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의 사례의 여성이 성을 '아름답고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과 나눌만한 것이다'라고 느낀것도 영화에서 표현되는 사랑의 느낌과 그 이미지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충동 내지 욕구는 영화라는 대상화된 형태 안에서만 나타나게 된다. 현실공간 속에서는 이러한 욕구가 언제나

순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이처럼 남녀가 서로 다른 성 문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남녀의 성 의식은 상이한 형태로 발달하게 된다.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이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히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에만 사로잡히게 된다. 이처럼 여성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형상화함에 있어서 정신과 육체의 극단적 분열을 내면화하며 그 결과로써 자신에 대한 억압구조를 확대재생산한다. 즉 그 스스로가 자신의 불감증을 조장하는 것이다.

3. 금기시된 성 '이야기'

3-1. 은밀한 이야기 - 성

서양철학에 토대를 둔 감성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그것을 하찮은 것, 또는 이성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 정도로 여기는 것이었다(김정희, 1991: 61). 그리고 이러한 관념은 성에 대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막아 왔다. 따라서 성에 대한 이야기는 음담패설과 같은 은밀하면서도 비공식적인 형태 구성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렇게 비밀스럽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공식적 담론에서조차 남성과 여성은 철저하게 차별화되어 왔다.

남성의 성문화에 대한 한 연구(장필화·조형, 1991)에 따르면 남성의 성에 대한 이야기는 규범적인 것보다 비규범적인 것, 공식적인 것보다 비공식적인 것, 정상적인 것보다 일탈적인 것에 더욱 허용적이라고 한다. 그들 이야기의 주제는 부부간의 성이나 피임, 임신, 출산 등의 문제보다는 주로 매매춘이나 외도, 강간 등 일탈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들은 이러한 담론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에 대한 지식화를 이루며, 그들 사이에 활성화된 비공식적 담론문화 속에서 남성주도적인 성 의식을 구성하게 된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성의 경우와 같이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

관계 경험에 집중되며, 그것은 주로 '남성다움의 과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는다. 성에 대한 이야기는 '저질'스럽고 '속물'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혹시나 화제거리로 등장하더라도 금방 다른 곳 옮겨진다. 이는 여성들이 모여서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정숙하지 못하다거나 음탕하다는 등의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미혼여성'들은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된다.

남자애들은 성관계 가진 애도 있다, 낙태했다, 어떻게 하면 여자가 더 좋아하더라 그런 얘기까지 한대. 그런데 여자애들은 얘기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 여자들은 특히나 얘기 안해. <사례 6>

앉아서 그런 얘기하겠어? 그런 얘기보다는 좀더 공통되어진 그런 얘기들을 하겠지. 뭐 대학교 전공이라든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할거 같애. 대학 친구들은 자기 직장생활 얘기 많이 할거구. <사례 15>

여성이라고 성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없고 그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타인에게 이야기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성들의 성 이야기는 비밀이 보장된다는 확신을 가진 은밀한 상황에서야 아주 낮은 소리로 말해진다. 그러나 은밀함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린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안해봤었어. 우리는 그리고 또 그런 얘기 잘 안해. 그 정도로 친한 친구도 없었어 나는. 사소한 일로 맨날 술을 마셔도 그 정도로 그런 애길 할 친구는 없었지. <사례 2>

그래서 이들은 이야기의 상대를 제한한다. 절친한 친구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만큼 신뢰가 가는' 친구에 한해서만 이야기는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야기는

상대에 대한 끊임없이 모색과 평가 이후에야 가능해진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잡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나는 내 성 이야기를 그만큼 의사소통이 가능한 친구한테만 얘기해. 그런 친구가 있긴 있어. 한명 정도 있어. 기혼자들이나 미혼이라도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거야. '아 그러나' 그러면서 의사소통이 되지. 그런거 있잖아. 결혼을 했어도 성에 대해 보수적인 애들에게는 얘기하기 힘들지. 그런 애들은 '너 조심해. 그런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애길하면 그런 애길 못하지. <사례 4>

상대가 사물을 보는데 있어서 보수적인가 아닌가,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의 사전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만일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질 경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돌려서 말한단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식 - 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 으로 자신의 고민을 해소하려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성들은 '듣는 사람이 충격을 받을까봐' 혹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라고 이유를 낸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를 안하는 것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혼전 성관계에 대한 사회통념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줄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대상에 한해서만 이야기가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의 하나는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이다.

내 생각에는 만일에 한 애는 남자친구가 없구 한 애가 남자친구가 있잖아? 그럼 얘기하기가 좀 꺼려질거 같애. 왜냐면 없는 애 외로와하잖아.

내 친구들도 보면은 아주 친한 친구고 단짝인데도 그런 얘기는 못하더라. 미안하니까. 그런데 둘다 남자친구가 있구 애인이 있는 관계면 충분히 얘기할 거 같애. <사례 15>

여자들 사이에서 애인이 있느냐 없는나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젊은이 집단에서는 '사랑에 빠짐'을 찬미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연애의 여부가 개인의 능력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듯 '그 흔한 사랑한 번 못해 본 사람'은 뭔가 모자라거나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특히 결혼 적령기라고 인정되는 나이에 들어서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결혼 이후에는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흠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주 구체적으로 체위를 비롯하여 성에 대한 여러가지 지식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가 그들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기도 한다.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었거나 모르는 척 해야만 했던 이야기들이 결혼과 동시에 가능해지는 이유는 결혼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결혼 안에서의 성이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 이후에 이야기되는 성은 사회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여성으로서 지니고 있던 성적 매력 또는 신비감을 상실했다는 표징이 된다.

고등학교 때도(대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얘기는 안했지. 나 혼자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결혼 후)은 친구들이랑 얘기해. 잠잘 때 어떤 체위니?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런 얘기해. 친구들을 보면은 반반이야. 결혼 전에 패팅같은 건 다 해. 한 명은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많이 가졌어. 친해도 얘기를 피해. 결혼하면 친구들이랑 '첫날 밤' 얘기를 하게 된다. 내가 경험이 없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거부감이 들어. 자기가 경험하면 되게 친숙해지지. <사례 7>

우리 사회에서 성에 대해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여성들이란 바로

아줌마들이며, 또 성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공식적인 특권자들도 이들도이다. '주부가 쓴 성 이야기'(이재경·김영미, 1995: 6-7)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세상 밖으로 목소리를 내보낼 수 있었던 것도 주부이기 때문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의 대상과 자격의 제한은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방식에도 원인이 있다. 여성들은 친구들과 모여도 '그런(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한다 해도 적절히 포장된 형태로만 한다. 성에 관해서는 서로 다 안다는 식의 집착이 이야기를 대신한다.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대부분 힘든 상황이 닥쳤을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죠. 근데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여자애들끼리 '얼마나 좋았나?' 그런 얘기는 안하잖아요... 개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성관계를 가지는지는 예상을 하는거죠. 둘 다 지방 친구다. 그러면 대강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얘기 잘 안해요. <사례 10>

대부분의 이야기가 '사귀는 남자 없니?' 정도에 그치고 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아가지 않는다.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경우에도 장난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묻고 대답하고 할 뿐이다.

특별하게 성에 대해 친구들이랑 얘길 해본 적이 없거든. 내 경험에 대해서는 별로 얘길 안해. 개네들이 그다지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면 "너 사귀는 남자 없니? 왜 없을까, 너 남자좀 사귀어라." 이런 정도만.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좋아한다." 그렇게 되지, "그 남자랑 어제 잤어." 이렇게 얘길 안하게 돼. 얘기 패턴이 그렇게 되는 거 같애. <사례 4>

내 친구들?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 물어보지 않는데 얘기하니? 장난 식으로 "재미있었나?" 이런 말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사례 8>

이러한 문화적 환경에서 오고 가는 성 지식이란 '굉장히 아프다더라', 혹은 '여자는 아이를 한 둘 정도는 낳고 나아 오르가슴을 느낀다던데' 라는 식의 부정적인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여성들은 흔들리기 쉬운 자신의 순결의식을 재무장한다. 결혼을 앞둔 친구에 대해서는 '어떤 가운을 입어라'라든가 '어떤 비디오표를 봐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이는 여성지에서 보고 배운 피상적 지식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여성들 간에 오가는 성에 관한 이야기가 모두 이렇게 피상적이고 가볍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일단 성인이 되고 나면 성은 여성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비중있는 몫을 차지하게 된다. 성이 지니는 이러한 비중은 그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꺼려도 화제의 대상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여성들은 좀더 진지하게 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친구에 대한 '상담'이라는 형식을 빌린다. 이것은 여성들이 성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손쉽게 채택될 수 있는 형식이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평소에는 연락도 안하고 전화도 안하는데 어쩌다 한번씩 전화가 올 때가 있으면, "잘 지내?" 이렇게 물어보면 목소리가 벌써 잘 지내는 목소리가 딱 아니예요. "너 또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면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나면 또 막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성에 관한)' 얘기들을 하죠. <사례 11>

애인이 있는 경우 성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 남성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의 통로가 끊어졌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가능한 친구를 찾는다. 이 때 이야기의 내용은 사귀는 남자와 헤어졌단가, 임신을 했는데 어쩌면 좋으냐는 것들로 이루어진다. 여성들 간의 대화는 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가능해진다. 성 문제가 상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야기의 닫힌 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이야기 문화는 다른 한편으로 의사소

통이 가능한 친구들 간에 더욱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성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둘 사이에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드러냈다는 신뢰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매우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며 자신을 억누르는 문제들을 혼자서 삭여야만 하는 부담스런 행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3-2. 답론 이전 상태에 묶어두기 - 성적 무지

여성의 성적 무지는 앞에서 논의한 사회화 과정들과 결부된다. 여성들에게 행해진 성교육이나 순결교육에서는 성이란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라고만 가르쳐왔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여성들의 성적 충동이란 없거나 남성에게 의해서 계발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그들에게 심어주었다.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 여성들은 성에 대해 알 필요성 자체를 박탈당해 왔다.

그거 다 본능인데 알아두면 뭐해. 책에서 본 것 그대로 하지. 하이틴 로맨스나 AFKN LATE MOVIE 그런거 많이 봤었어. 고등학교때. 키스 장면 같은 걸 보면 짜릿하지. 저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충동적인게 많아. 사람마다 충동이 다 있다.... 임신하면 어떻게 할지 그런생각은 했었지. 그런데 피임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은 못했지. <사례 7>

위 <사례 7>의 경우는 성적 욕구란 본능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식의 차원에서 알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성적 호기심이 알에 대한 욕구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좌절된다. 알 필요성을 박탈하는 것, 알 필요가 없다고 내면화시키는 기제가 호기심과 욕구 사이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에게 욕구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이와 같은 지식의 '불필요성'에 대한 관념은 여성의 수동적인 의식과 맞물려 무지를 강화시킨다.

여성의 수동성과 성에 대한 둔감함은 모성과 가사에 대한 책임수행을 위해 요구

된다. 아내의 정숙함은 가정을 지켜주고 남편과 가문의 명예를 대변하는 상징으로 미화된다. 따라서 여성의 행동이 무성적(無性的)이 아닐 경우, 예컨대 성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성적 유혹을 하는 행위 등은 정상적인 여성의 행동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여성은 성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과 호기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이영자, 1989).

여성의 성적 무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이 외에도 '성이란 결혼하는 사람과만 성립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들 수 있다. 그러한 믿음에 근거해 있는 경우에는 임신에 대한 걱정도 '그런 경우에는 빨리 결혼을 해서 낳으면 되지'라는 식으로 해소가 되어 버린다. '처녀성'이라는 것도 지금의 상대와 결혼을 하면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에 관련된 모든 고민과 걱정을 결혼이라는 것에 떠넘겨버리는 이러한 습성은 여성으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성에 대한 지식을 추구할 필요를 없애버린다.

여성들의 성적 무지라는 현상은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에 대한 찬미라는 보다 일반적인 현상과도 연관성을 지닌다.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이든 많이 아는 여성을 골치아파하는 통념이 퍼져있다. 사실 많이 알면 아는 만큼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권위주의적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남성을 주눅들게 하는 것이며, 결국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을 중심으

8) 이러한 의식적 관습은 남성과 여성의 성욕이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리돈의 다음과 같은 반론은 흥미해볼 가치가 있다. "오비드(Ovid)의 전설에 의하면 조브(Jove)와 주노(Juno)는 성행위에서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이 더 쾌락을 느끼느냐의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양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는 티레시아스(Tiresias)에게 답변을 구했다. 그는 서슴치 않고 여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비드의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2천년은 이 신화의 반대 방향으로 발전해왔으며 이런 신념을 남녀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이데올로기로 정착시켰다. 그리하여 남성을 위한, 남성에게 의하여 결정된 여성의 성은 비하되고 타락되고 억압되고 조작되어 왔다(황필호, 1989: 36-37)." 이처럼 여성의 성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권제 사회의 제조건은 여성 성욕의 잠재능력을 파괴하고 성욕의 진정한 속성을 왜곡시키는 것이다(Millet, 1970: 228-230). 즉 여성은 자신의 성욕을 마치 징벌처럼 무조건 참고 견디며 또 부끄러워하도록 사회화된 것이다.

로 이루어지는 부권제 사회에서는 여성이 종속적인 지위에 묶여있어야만 하는데, 여성의 종속성은 모든 면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열등해야만 가능해진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더구나 그것이 성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여자는 성에 대해 남자만큼 능동적이지 않은 것 같애. 그런데 일부러 열심히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애. 자연스럽게 접하는 게 좋겠지. 성에 대해 빨리 눈뜨면 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남자들하고 맞대고 싸울 수도 있을것 같애. 남자들의 얘기에 더 예민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와질 수 있을 것 같거든. <사례 6>

그런데 자연스럽게 성에 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성적 지식의 습득을 전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한다는 이야기이다. 결혼 후에 남성의 리드에 의해 성을 알아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결혼 전까지 현재의 무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대중매체가 범람하고 여성의 성경험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신에게로 밀려들어오는 지식의 홍수를 통제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욕구란 통제하고 절제하면 된다. 절제가 몸에 배어 있으면 그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변화된 외부의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의 순결의식과 욕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요소의 하나는 잦아진 남성의 유혹이다. 연애가 보편화되고 자유로운 만남이 일상화된 가운데 성적 유혹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게다가 요즘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여성의 순결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류의 사고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에 더 많이 확산되어 있다. 연애 경험의 많고 적음이 능력과 연결되는 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연애마저 기피할 수는 없게 된다.

사랑하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연애 부족이야. 사랑을 하면 눈이 멀어. 좋은 점만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성적으로 되잖니. 그러면 안그래. 연애를 몇 번 해보잖아. 그러면 꼬가 생겨. 다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애. 연애 많이 해본 사람이 그런 적 봤니. 사랑하니까 한다는 건 별로야. 위험한 것 같애. 너무 후회돼. 성과 결혼을 분리하면 안 될 것 같애. <사례 7>

성과 결혼이 확실히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여성들은 성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지한 것으로 여긴다. 손익계산이 확실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해볼 것이 자명한 게임을 하는 여성들이 어리석게만 보이는 것이다. 이들에게 여성의 성 경험이 많아졌다는 통계자료는 그다지 신빙성이 없어보인다. 이들의 신념을 더욱 크게 좌우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주변에는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마련이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계산이 사랑을 압도한다. 이들에게는 남성의 유혹때문에 고민이 생긴다거나 신념이 흐려진다고나 하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성적 무지는 오히려 떳떳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위의 경우와는 달리 끊임없이 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성과 결혼의 연결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지니지 못한 경우이다. 이들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대하다. 그러나 자기만은 안된다. 이러한 분리는 성적 자유가 여전히 이중적 성규범 체계와 남성의 성적 우월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조건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의 혼전 성관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추상적인 문제이지, 자기 자신의 성적 무지가 문제로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혼전에는 결코 성관계를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임신이 안되는 친구들은 그런 걸 잘해서 임신이 안되는지 그 만큼 횟수가 많지 않아서 임신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나도 그런 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애길 하면 큰일 나죠. 하도 뽀뽀 하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그래서... <사례 11>

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 그 와중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상대 남성의 요구 속에서 '성'은 지속적인 고민거리가 된다. 비교적 독특한 사례이긴 하지만 다음에 사례로 제시되는 한 여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민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성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강한 거부감의 원인 분석에까지 이르게 된다.

시간도 얼마 없는데 만나기만 하면, 나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그런 애기를 하고 싶어하는데 그런 애기 보다는 나란히 앉고 싶어하고. 만나기가 좀 짜증날 정도로. 내 스스로의 진단에 의하면, 어릴 때 그런 사람들(성기 노출증 환자)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나빴어요. 애도 전철에서 그럴 수 있는 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들은 다 똑같애. 이러면서. 또, 내 친구들 보면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남자 친구들 자주 바뀌는데 같이 지내는 것도 많이 봤고, 그런걸 많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보인다고보다는 그렇게 됐을 때 꼭 끝날 때쯤 되면 여자가 너무 불쌍하다는 그런 거. 남자애들은 그러고 가면 끝인데 여자애들은 그 뒤에 남는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싫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례 11>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 성적 무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위의 사례는 성을 경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자신의 좋지 않았던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문제를 분리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그렇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의 사고는 사랑이 개입되어도 완화된다는. 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꺼리므로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친구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란 성에 대한 이야기나 지식이 아니라 그것으로 초래된 비극적 상황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야기를 들을수록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그의 태도는 강화된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거부하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특히 연애상대인 남성과의 대화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이중성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남들은 괜찮지만 나는 안된다거나, 마음은 자유로울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은 그렇지 못하다거나 라는 식의 이중성은 대화를 통해 표면화되어야만 비로소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도달함으로써 여성은 자아의 혼란을 겪게 되고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 침묵은 여기에서 평소 징후적으로만 느끼고 있던 자신의 이중성이 명백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제로서 등장한다.

‘그런 거(성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얘기하기 싫거든 개량.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어떤 땐 개하고 나하고 의견이 안맞을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게끔 만들지. 예를 들어서 자기 동생 이랑 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혼전 성관계가)안돼. 그런데 우리 둘 간의 문제는 괜찮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애. 나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어느 단계까지 안된다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 한 적이 있었어. 그리고 나니까 사실 또 뭐 별게 아닌것 같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는 남 얘기 하고 내 얘기 하고 또 다르잖아. 그런때는 실감이 되지. <사례 8>

위의 <사례 8>의 말에서도 확인되듯이 남성과 여성이 지니는 성에 대한 태도는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성관계를 갖고 싶어하며, 갖고 나서도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반면에 여성들은 순결에 대한 끊임없는 강박관념을 지니고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의식과 행동이 불일치를 나타낼 경우 커다란 갈등을 겪게 된다. 이야기가 오고갈 경우 이러한 불일치는 증폭된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화는 더욱 회피되게 된다.

결국 여성이 성 자체를 직시하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출발점은 - 너무나 큰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성에 대한 각종의 부정적 선입견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커다란 힘은 자신의 경험으

로부터 비롯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경험이 동료들의 경험과 소통됨으로써 공동의 경험으로 변화된다면 여성들의 성에 대한 의식은 새롭게 변모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도 다시 발생한다. 여성이 아무리 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성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떳떳이 밝히는 것은 적지 않은 위험부담을 내포한다.

애들한테도 성관계라든가 그런 걸 알고 있다고 막 아무리 좇아들은 풍월이라도 사람이 다 내 맘 같지가 않잖아요. 나는 좇아들은 거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구요. 많이 들으면, 그게 안좋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같으면 안좋을 수도 있지만 하룻밤 상대 같으면은 좋을 수도 있죠. 일단 처리가 깨끗하게 되니까. <사례 14>

사회통념상 여성이 성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경험이 없다는 것과 동일시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식이 많으면 경험이 많다는 역도 성립한다. 따라서 많이 알고 있는 여성은 대부분의 경우 그런 사실을 숨겨야 한다. 성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는 듯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룻밤의 상대라거나 한번 보고 말 사람에 대해서라면 자신의 성지식을 솔직하게 내보여도 상관없다. 별 탈이 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여성은 이중적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다.

남자의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겁이라고 그럴까 자주 피하냐면요. 남자애들 대부분 다 그래요. 남의 여자는 아무 남자하고나 자고 어디 가서 술을 따르고 그래도 자기 여자는 절대 안된대. 남자들이 자기 여자는 순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구요. 의외로.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내 남자 친구앞에서는 조숙한 숙녀인양. 상관없는 애들하고는 까불고 놀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성에 대해서도 “그래 쌍코피 터졌더라.” 이런 얘기 신나게 하다가도 남자친구가 “너 그런 영화 봤

어?" 그러면 완전히 내숭은 아닌데... 10편 본길 2-3편 봤다고 줄이고 강도가 약한 걸로... 잘 보일려고... 그러나, 나는 깨끗하다 천사표다 이렇게 이마에 써 붙이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말이나 행동같은 걸로 나타나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재는 막 나가는 스타일이야, 아무나하고 부킹해서 엔조이 식으로 하룻밤 자고 그런다고, 그렇게 낙인을 찍으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고, 그러면 집안 괜찮고 능력있고 그런 애들은 절대 소개시켜주지 않아요. <사례14>

위의 경우를 보면 여성의 이중적 행동은 남성의 이중적 태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곧 여성들이 지극히 남성 의존적인 사고와 생활방식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자신이 만나고 결혼하게 될 남성들이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점은 여성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결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또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이들에게서 자신이 사랑하는 남성의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단지 억압적 사회체제에 순응함으로써 순응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 좋은 혼처 - 을 획득하겠다는 욕망만이 두드러질 뿐이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동료들의 '낙인'이라는 것도 동료들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라기 보다는 좋은 남자를 소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의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여성들이 성 지식 획득의 주된 창구로 이용하는 것은 애인이나 남편이다. 그들이 전해주는 성 지식의 내용은 몸의 구조나 피임 등 동료들에 의해 접한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대부분의 지식을 남성으로부터 습득하는 가운데 여성은 남성에 대한 성적인 의존성을 높여간다. 그는 남성이 하는 말을 철저히 신뢰하며 자신이 습득한 지식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성이 전달하는 지식 역시 불철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것들은 대부분 어디서 주워 듣거나 책을 통해 단편적으로 습득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은 많이 얘기 했죠. 남자가 느끼는 거라든가 여자애들은 이렇다든가 너는 어떠냐. 알고 있는 상식이 다 책에서보거나 어디서 주워 듣거나 말도 안되는 얘기를 - 여자는 온몸이 성갑대라는데 너는 요기(옆구리를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찔러도 성갑대야? 아니야. 그러면 이상하다. 그리고 (성행위를)하면 좋다든가 뭐 아주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서로. <사례 9>

지금 내 남자친구와 제일 얘기를 많이 해. 성에 대한 느낌이나 어떤 식으로 하자든가 솔직하게 기분을 이야기해.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좋은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애.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사례 1>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그 진위를 절대로 의심받지 않는 남성의 성지식이라는 것은 실상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남성들은 대개 여성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한 자신감을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에 대한 고민으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적인 것을 인정받는데는 힘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강력한 힘은 남자들을 항상 긴장시키는 끊임없는 강박관념이자 영원한 추구의 대상이 된다.... (포르노 배우들과 비교해볼 때) 너무나 불품없는 크기와 (포르노에서의 자위행위시간과 비교해볼 때) 너무나 짧은 시간으로 인해 무능력한 남자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실제 여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심각하게 대부분의 남성에게 다가선다.... 그리고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 성경험이 없는 많은 남성들은 자신이 장차 남녀관계, 특히 성관계에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남성으로서의 성역할을 배우기 위한 교육용의 목적으로 포르노를 보는 이도 많다

9) 한 대학의 문화이론 시간에 조별 토론 과제로 제출된 보고서 중 일부이다. 몇 명의 남성들이 포르노를 본 경험과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글로 엮은 것을 인용한 것.

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남성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이란 남성중심적인 시각으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성기 중심적인 포르노나 동료들간의 음담패설 등 남성의 일방적인 성관계가 강조된 것이 지식의 주종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들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을 만족시켜야 하며 여성은 그러한 남성의 자존심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따라서 성행위는 단순히 육체적 쾌락만을 지향하게 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거짓된 괴성 등 가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위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성들은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포기하거나, 성적 만족이란 없다고 믿게 된다.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현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성적인 걸로 고민은 없었는데 오르가슴이라는 거 있잖아. 여러 사람이랑 경험이 있으면 비교를 해서 알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 느낌인지 모르겠어. 이게 그거 같지는 않아. 더 이상의 느낌이 있을 것 같애. 키스도 키스하는 기술에 따라 느낌이 다르거든. 오르가슴을 못느끼겠다고 얘기 안해. 남편의 자존심을 깎아내릴까봐 못하겠어. 어머나고 물으면, 응 좋아 그래. 다른 건 다 얘기 하겠는데 그 느낌에 대해서는 얘기 못하겠어. 남자들은 여자가 만족하는 거에 신경을 써. <사례 7>

무지의 원인이 순결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성경험을 하고 몇 개월을 고민하고서야 자기에게 그 고민을 안겨주었던 알수없는 실체가 순결 이데올로기라는 걸 깨닫기도 한다. 무지로 인해서 임신에 대한 아무런 불안감이 없으며, 아이가 생기면 뭘수 있다고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 결과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 공포증이나 불감증에 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임신과 같은 구체적인 피해에 봉착해야만 비로소 성적 무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다. 조사대상자 중 한 여성은 “솔직히 말해서 내송 떠는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순진한 줄도 몰랐었다. 그것 때문에 애기가 생기는 줄도 잘 몰랐었어 나는”이라고 털어

놓은 바 있다.

지금까지 여성에게 강요되는 성적 관심의 억압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여성의 성적 지식화를 막고 무지를 길들이는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사회 문화 속에서 성적으로 무지한 여성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난관들을 지적해 보았다.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작동되는 여성 억압구조는 1990년대라는 이 시점에도 여성들을 여전히 피해자로 또는 피해의식의 소유자로 키워나가고 있다. 여성들은 엄청난 피해의식을 안은 채 실리추구적 계산을 통해서 손해를 방지하거나 그냥 속수무책 피해를 당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결과적으로는 구조의 희생양들이며 다른 한편으로 억압구조를 재생산해 나가는 건인차들이기도 하다.

IV. 성경험 - 적응 혹은 이탈

이 장에서는 혼전 성경험을 둘러싼 다양한 태도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우선 혼전 성관계를 유보하는 경우와 수용하는 경우로 행위유형을 구분해 본다. 여기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 성에 대해 다른 방식의 행동을 나타내는가? 다시 말해서 왜 어떤 이는 욕구를 절제하고 어떤 이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 장에서는 성의 지식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여성의 성 의식이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며 어떻게 변화 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혼전 성경험의 유보 - '선'긋기

1-1. 정상·비정상의 구분: 절제

연애가 시작되면 어느 순간부터 반드시 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두 사람이 친구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할 때는 사랑 뿐만 아니라 성적 관심도 함께 커진다. 예전에는 남성의 애정 척도가 여성의 순결을 얼마만큼 지켜주느냐로 판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성에 대한 관념이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남성의 성적 요구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거부는 남성에게 사랑이 없다거나 아니면 내숭을 떠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남성에게 불쾌감을 안겨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만 하며 그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유지해야만 한다.

다음의 사례는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여성은 키스나 애무 등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자신에게 내재된 욕구를 발견한다. 그러나 이 욕구는 발견되자마자 억압되어야 한다. 이 때부터는 절제라는

'미덕'이 욕구의 발산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이 절제의 미덕은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남성 역시도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게 된다. 관계를 지속시키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피해 산책을 하거나 결혼까지 참자고 다짐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된다.¹⁰⁾

한 2-3년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게 없어도 행복했었고. 손잡고 다니고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키스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도 그렇고 내 안에서도 욕구가 있으니까. 많이 참은 편이에요. 카페 있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면 나가자 그래서 나가 걷게 되고 공원에 가서 앉아있고, 그 순간들에 대해서 많이 피한 편인 것 같아요. 얼마 아파가 엄격하신 편이거든요. 귀가 시간 때문에 늦게 들어간다거나 새벽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서 그런게 도움이 됐겠죠. 그런 면에서는. <사례 12>

그러나 이미 알아버린 욕구는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욕구를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억압구조에 대한 순응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이제부터는 자기자신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욕구는 자신이 이십년 이상 쌓아 온 도덕적 신념을 위협하기 시작한다. 갈등은 시작되고 전투는 더욱 치열해진다. 결국 순결의식은 모든 종류의 억압기제를 동원하여 욕구가 행동으로 나아가기 전에 다시금 자아 깊은 곳에 파묻어 버린다.

같이 자고 싶거나 관계를 갖고 싶거나 그런 생각은... 생기는데 행동으로는 못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상당히 난 절제가 되어진 것 같애. 너무 억압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하게 나타나면 안된다 라는 그런 게 있는것 같애. 이건 내가 절제해야지 해서 절제가 되는 게 아니구, 나도 모르게 절제된 감정으로 표현이 되어져. 무슨 이윤지 알지? 그러니까 그게 내가 충동을 강하게

10) 이 역시 순결교육의 내면화가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황은자, 1993).

느끼구 이러지가 않아져. 잡재의식 속에서는 강한테 어느정도 놀리구 나 오니까 내가 의식을 못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걸 강하게 느낀 적은 없었어. <사례 15>

이렇게 억제된 욕구는 '나중(결혼 후)'으로 돌려진다. 이 '나중'이란 말은 욕구에 대한 일종의 타협안이다. 욕구에 대한 타협은 키스나 에루에 대한 전적인 허용을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이 정도로만 만족하자'는 것이다. 이 때 일종의 자기기만의 메카니즘이 작동하게 된다. '이 정도로만 만족하자'는 것은 분명히 여성이 자신의 욕구에 대하여 하는 말이다. 그러나 여성은 그 이야기를 남성의 욕구에 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한다. 그럼으로써 넓지 말아야 할 '선'이 지켜지는가의 여부는 남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된다. 분명 욕구의 주체가 여성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자기 몸 에 대한 결정권을 남성에게 넘겨주는 것이다(추예주, 1991). 여성은 자신의 욕구를 관리하고 몸을 책임지는 그 지난한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어릴 때부터 자기 뜻대로 몸을 관리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을 남성의 소유로 넘겨준 여성의 가슴 속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데 대한 미안한 감정만이 남는다.

지금은 참지만 나중에 두고보자 그런 얘기 많이하고. 어떨때보면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어요. 나도 하고 싶은 유혹도 있고. 근데 내 생각때문에 안되는거죠. 가치관때문에. 근데 보통, 남자가 참지 못한다거나 그럴 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은 웬만하면 멋있게 하고 싶어요. 안아보고 싶다, 갖고 싶다 그런 얘기 하는데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행동도 그렇게 하는건 아니니까. <사례 12>

성관계를 유보하기로 상대 남성과 합의가 된 경우, 성 문제는 더 이상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을 아름다운 것이 된다. 절제는 성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절제를 통해서만 멋있는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나타난다. 결혼 후의 성은 고통을 거친 후에야 도달할 수 있는 승리를 상징하며 그런만큼 기쁨은 배

가될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반면에 성관계의 유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즉 남성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여성의 갈등이 극심해진다. 자신의 욕구와 순결의식 사이에서 여성은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들여다 보며 괴로워하게 된다. 때때로 성에 대해 자유로운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이 솔직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회의에 빠지기도 한다. "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라는 남자친구의 이야기에 뭐라고 딱히 반박할 수가 없는 자신의 처지가 답답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내부에 있는 순결의식은 모범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를 끊임없이 몰아붙인다. 결국 자신의 몸이 자신의 의지 밖에 있다는 사실만을 실감하게 된다.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절제의 습관은 자라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입되어 온 '도덕적 인간'의 이미지로부터 비롯된다.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착하고, 압전하고, 말 잘듣고...' 하는 식의 도덕률이 남성의 경우보다 훨씬 강조된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러한 도덕적 평가를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의식을 정립해 나간다. 따라서 '부도덕한' 성행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긍정적 자아의식을 훼손시키는 것인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주어왔던 긍정적 인상을 일순간에 잃게되는 것이다. 결국 그는 절제라는 미덕을 발휘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도덕적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엄마나 아빠가 나한테 기대하는게 많고, 너무 이러저런 틀에 의해서... 인형처럼 이렇게 자라야된다... 모범적인 그런 스탠다드형만 자꾸 주입을 시켜가지고 나는 거기서 벗어나면 안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전에도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거 배우면 그대로 행동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나 스스로도 디프레션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자기 스스로 억압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긴 하는 것 같더라. <사례 15>

그런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나친 억압은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이

러한 억압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적인 상황들에 의해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삶에 부여된 가치관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규범적인 여성일수록 자신의 몸, 성 그리고 결혼 등에 대한 자신의 결정이 독자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이미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자녀출산)의 선택, 그리고 결혼관계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 등을 규제하는 여러 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김은실, 1991). 위 사례의 여성이 지닌 우울은 이러한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규제에 대한 무의식적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의 흔들리는 순결의식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에 의지하기도 한다.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순결에 대한 재교육을 받는다. 성경에서는 혼전 성관계와 같은 '음탕한' 생각을 마음에 품기만 해도 죄가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한 생각이나 행동은 일종의 신성모독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물론 공식·비공식적 수준에서 늘상 들면 이야기를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이 종교라는 권위에 의해 설파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이 주로 어떤 거야?)

혼전관계는 안된다야. 그리고 뭐 어디까지 되고 이런건 없어.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봐주시겠지. 뭐 이런 거야. 어쩌면 내가 완전히 혼전 관계는 안된다 라고 못박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세워는 기준인지도 몰라. <사례 12>

위 사례의 여성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순결 이데올로기의 위력을 재확인할 수 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순결교육은 실제로는 종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의 순결 이데올로기가 종교의 언어를 빌어 이야기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여성의 경우는 순결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신의 굴복을 종교의 가르침이라는 형태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삶의 추구는 자신이 혼전 순결을 지켰을 때 느끼게 되는

만족감을 위한 것이다. 보편적이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냈다는 자부심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가장 커다란 받침대가 된다. 다음 사례의 여성의 경우에는 혼전 순결이 단순한 도덕적 만족감을 넘어서서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이라는 의미로까지 확대된다.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인 것 같고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내가 경험을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한 거라는 생각들기 때문에. 나는 이해타산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교육이나 가치관 탓이겠죠. <사례 12>

반면 다음에 제시되는 사례는 낙인과 인정이라는 두 갈래의 길 중에서 인정받는 것을 택함으로써 기존의 성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 경우가 위의 <사례 12>와 다른 것은 위의 경우가 순결을 지키는 것에 따른 자기만족을 중시했다면, 이 경우는 그것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여성은 또래 문화 속에서도 순결은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여성이 순결을 지킴으로써 동료들 사이에서 누리는 혜택이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동료들이 자신을 높이 평가할수록 그의 몸 관리는 더욱 철저해진다.

내가 친구들한테도 '야, 나 남자 소개시켜줘' 그러면 '넌 안돼'. '왜?' 그러면 '넌 좀 기다려보라고. 너한테 맞는 괜찮은 남자가 나오면 소개시켜 주겠다'는 식으로 애길 하니깐 느낌이 괜찮아요. 그런 느낌. 일종의 자기 관리를 하는거죠. 나는 이런 애가 아니다. 나는 이런 애가 아니니까 막 나가는 애 소개시켜 주지마.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니까. 그게 더 큰 거죠. <사례 14>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소외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어느 사회나 나쁜 규범적 또는 도덕적 기준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에서 이탈하는 구성원에게는 소외라는 형벌이 부과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나 행동이 규범적 기준

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된다. 이 절에서 나열되었던 사례에 속하는 여성들은 모두가 이러한 사회의 일반적 규범기준에 순응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가 비정상 또는 일탈적이라고 구분한 범주에 자신이 귀속되는 것을 피함으로써 소외나 사회적 고립과 같은 처벌을 면해보려는 것이다. 물론 이 유형 내부에도 규범에 대한 적극적 내면화를 통한 적응의 사례로부터 아주 위태롭게 순응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동기와 결과에 있어서 이들 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1-2. 현실적인 계산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시장경제의 가치가 확산될수록 결혼이 여성에게 차지하는 의미는 커진다. 결혼은 점점 시장에서의 상품거래 활동을 담아간다. 물론 여기에서 상품은 여성이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여성들 중에서도 그것에 접착해 적응해나가는 '영악한 계집애'들이 생겨난다. 앞선 절에서 살펴보았던 여성들이 대개 순결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순응하고 그것으로 인해 갈등하는 반면, 이 유형의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한다. 즉 자신의 처녀성을 상품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순결 이데올로기가 강화될수록 더욱 큰 이익을 보게된다. 자신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다¹¹⁾.

혹시나 일이라도 일어날까봐... 사람 일은 모르잖아.

(일이 뭐야? 임신?)

그럴수도 있지. 그릴 수도 있고, 만일에 최악의 경우에 헤어질지도 모르잖아.

11) 타산적인 결혼을 한 여자에 대해서 "자신의 육체를 도급제가 아니라 영원한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이 매음녀와 다른점(Engels, 1892: 79)"이라고 한 엥겔스의 지적은 이미 200년 이상 경과한 것이지만 오늘날 결혼제도의 핵심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헤어지게 되면?)

헤어지게 되면 그러면 또 누구 사귀냐?

(그러지 못할 거 같애?)

응. 미안하잖아.

(그 사람도 경험이 있을지 모르잖아.)

모르지. 근데 믿구 시작을 하는거지.

(없을거다? 남자들 대부분 없을거 같애?)

대부분 있을 거 같애. 왜 그런대잖아. 남의 남편들은 다 그래도 자기 남편은 안그럴거라고. 그리고 어쨌든 의심을 하고 시작하면 어떻게 발전이 되겠어?

(상대방이 만약에 있다고 애길 하면?)

문제가 안될 거 같애. 사랑하니까. 그리고 생각을 안하겠지. 잊어버리겠지. 자꾸 생각하면 기분나쁘잖아. <사례 15>

여성이 결혼에 대한 남녀차별적 가치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남성이 여성의 순결을 주장할 권리를 지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결혼 시장에서 남성은 구매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품으로 거래되는 여성으로서는 자신의 구매자에게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적응한 여성들은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타산적 행동을 하게된다. 그들은 이러한 이해타산에 따라 자신에게 가해지는 성적 억압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다.

연애를 하면서... 다른 남자들과는 본능이 있어도 결혼을 안할 거기 때문에 안하지. 옛날에 연애를 하기 전까지 무조건 순결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애들이 너는 왜 그렇게 촌스럽니 그렇게 얘기 했었는데. 상대가 요구해도 안하지. 결혼을 할지 안할지 몰라. 그리고 그냥 좋아하고 만나는 남자면 관계라는게 처녀막을 다치지 않은 거면 괜찮아. (피가 안나오기도 하잖아) 그거 잘 몰랐었어. 그리고 나도 피가 안나왔어. 그런 상식이 있었으면 모르지. 그런데도 양심상. 처음에 했을 때는 겁났어. 이러다가 이사람

이 나 버리면 어쩌나. 이 몸 가지고 어떨하나. 남자의 반응을 보면 느껴져. 걱정을 안해도 되겠구나. 결혼하기로 날짜를 잡아도 하고 나서는 걱정이 돼. 성경험에 대해 그 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하지. 결혼 얘기가 오고 가야. 결혼 확실하지 않을 때나 결혼이 배제된 상태에선 절대로 안되지. 나 같으면 후회할 것 같애. <사례 7>

위 <사례 7>의 경우는 성과 결혼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결혼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저히 유혹을 거절한다. 그러나 결혼에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는 성관계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단지 아직 '결혼식'이 치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혼의 확실성을 믿지 못하며 따라서 일말의 불안감을 가진다.

Fuchs(1986)에 의하면 여성들은 대개 '그것' 만은 허락하지 않지만 그 밖의 모든 것은 되풀이해서 허락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그것만'이라는 것은 처녀막의 파괴이다. 그는 이를 '반처녀'라고 개념화하는데, 이는 여성이 자신의 과거를 신랑의 침대에서 합법화하기 위한 총명한 대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반처녀는 부모의 절대적 지지 속에서 이루어진다. 부모의 입장에서 젊은 딸들의 플러트(flirt: 남녀간의 음탕한 장난)를 지지하는 것은 두가지 의미가 포함된 것이다. 하나는 자신들의 딸들로 하여금 남자와의 교제에서 '뒤탈이 없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플러트를 이해하는 젊은 처녀가 가장 재바르게 남자를 손에 넣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처녀는 세련되게 남자를 상대하여 대답하게 그를 도발하고 결국 남자로 하여금 도망갈 수 없도록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키스나 애무 등 '선'을 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은 여성이 자신의 순결을 지켜나 가면서도 결혼시장에서의 우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일단은 잘 모르고... 여자가 너무 나서서는 안된다. 그럼 이 남자가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도대체 이 여자가... 만약 그런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걸 굳이 밝힐 필요도 없고 얘기해서 좋

을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얘기 안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너 도대체 몇 번 했어? 어느 남자랑 했어? 피곤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남자들이 당연히 처녀일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너도 처녀가 아닐거다 라고 얘기 하잖아요?)
떠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귀면 결혼 전에도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나서서 할 생각은 정말 없어요. 그걸 하고 싶다는가 분위기를 유도한다는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사례 9>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성의 수동성은 '순결은 한번 깨어지면 영원히 깨어지는 것'이라는 관념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근데 굉장히 자유롭다는 것이 있기가 불가능한 거 같아요. 처음에 그러기가 되게 힘든데 한번 그런 생활을 하면 나는 문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기는 한번 그렇게 해 봤으니까, 분위기가 되고 할까 말까 이런 갈등이 생길 때면 '한번 해 봤는데 두번 못하겠나'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자기네들이 대중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안맞는다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여전히 안그런 사람으로 봐지기를 바라는 걸 보면 아직은 완전히 생각 자체가 개방적으로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사례 14>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생각들이다. 순결을 받아들이는 이유도 사실상 이런 식의 눈치보기에 있는 것이다.

여성의 순결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또다른 요인은 '여자만 피해본다'는 피해의식의 내면화이다. 혼전 성경험은 화약을 안고 불구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여자가 남자를 찬건데, 그런데도 새로 뭔가를 시작하려

면 걸리는건 항상 여자쪽이더라구요. 항상. 그러고나서 잘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집안에서도 딸에 대한 불신같은게 있으니까 “너 같은 딸 둔 적이 없다”그러면서 식구들과도 사이가 안좋아지고, 그래서 더 비뚤게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사례 11>

주변에서 보이는 한 두명의 피해사례는 대부분의 여성에게 ‘자기 일’로 다가온다. 교육을 통해 피해의식만을 주입받아온 여성들에게 이러한 실제적 피해의 사례는 그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움추려진 여성의 몸은 자신의 몸에 대한 주장을 가로막는다. 이와 같이 여성들은 이러한 피해의식의 내면화를 통해 자신의 주체성 형성을 저지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여성 억압적인 성문화에 대하여 여성들이 적응하는 양식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이 선택한 ‘적응’이라는 전략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의 여성들에게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지난한 투쟁이며 또 다른 여성들에게 그것은 철저한 이윤추구적 행동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이 전략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순결을 지켜냈고 사회적 억압구조를 재생산해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안과 밖 모두에서 아무 것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다.

2. 혼전 성경험

2-1. 첫 경험

2-1-1. 바깥지 않은 유혹의 결과

여성의 혼전 첫 경험은 대부분 남성들의 끊임없는 유혹과 설득에 의해 이루어진

다. 혼전에 성경험을 가진 여성들이라고 해서 앞 절에서 살펴본 여성들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들 역시 오랜 기간동안의 순결교육과 성에 대한 부정적 내면화를 이루어왔고, 그만큼 성행위에 대한 망설임과 주저가 큰 것이다. 따라서 성행위에 대한 이들의 결정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요구하는 남성에게 대한 죄스러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그들의 첫경험은 대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것이 되기 쉽다.

특히 남자들이 여자를 설득시키잖아. 나는 너 좋아하는데, 넌 나 안좋아하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자들이 싫어하는게 아니니까, 그렇게 집요한데 어느 여자가 안하겠다고 얘길 하겠나고.... 친구들과 토론하면서는 사랑하면 같이 잘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사실상 별 생각을 안했던 것 같애. <사례 4>

성관계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에는 순결의 중요성이 개인 속에 너무나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성에 대해 계획적인 남성에게 비해 여성을 그것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 남성이 여관에 가자고 할 때에는 이미 성관계가 상정된 것이지만, 여성은 단지 ‘둘이서만 있는 것이 좋아서’ 따라가게 된다. 이는 남성을 사귀기 전까지 여성들이 철저하게 성에 대한 무지 속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경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여관에서 둘이서만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 그러나 이미 일은 저질러지고 난 이후이고 여성은 다시금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고통스런 과정을 시작한다. 이 때 사용되는 정당화 수단으로 가장 손쉽게 이용되는 것이 ‘사랑’이다.

처음 관계를 가지는 걸 약속하고 한 게 아니야. 자주 만나다보니 갈때가 마땅치 않으면 여관에 가서 얘기하고 손잡고 만지고 그랬어. 그사람하고 둘이 있다는게 좋았고 그러고도 두번 정도는 아무일도 없었으니까. 사실상 그 사람이 삽입을 했다는 것도 침대에 뭔가 흥건한 것이 묻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였어. 그때서야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았

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나 미안해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내가 오히려 그를 위로했던 것 같애. 그런데 진짜 괜찮아서는 아니었고 굉장히 놀랬어. <사례 1>

성행위는 말로 표현되지 않고 은근슬쩍 이루어진다. 남성은 손을 잡자거나 키스를 하자고 물어보지 않는다. 단순히 여성을 떠보기 위해 일단 손을 슬쩍 잡아보고 어깨도 한번 걸쳐본다. 그리고 여성이 거부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알고 그 다음의 단계를 밟아간다. 여성은 단지 소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남성의 손길에 맡길 뿐이다.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에 합의한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 간의 적극성과 소극성은 여전히 이분화된다. 언제나 남성의 요구가 선행되며 여성은 남성의 요구에 대해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린다. 만일 성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여성이라면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스스로가 성에 대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첫 경험의 상황에서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첫 경험은 자신의 생각에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의 산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남성의 제안이 없다면 혼전 성관계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은 성적으로 자유롭다고 여기고, 경험 할 계기가 생긴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에게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다음 사례의 경우는 이를 잘 보여준다.

요구를 했는데 '안된다 절대'. '왜 그러냐? 너'.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통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로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개방적이라고 생각했고. 나에 대해서 '너는 생각하는 거 하고 행동하는 거 하고 왜 그렇게 다르냐?'. 앞서 얘기 했던 것처럼 난 남자들에게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 고민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 좋아하냐?'고. 이 사람이 짐승이나 아니냐.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고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람이 던지는 문제제기에서, 그 사람이 계속 던지는 질문 공세에 나는 피할게 없어서 깨졌지. 그래서 했는데 별로 둘 다 좋은 감정이 아니었어요. 끝난 다음에. <사례 9>

일반적으로 남성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성의 판단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냐 아니냐에 따라 이루어진다. '짐승이나 아니냐'의 판단은 사랑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다음 사례의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였고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로 성관계를 생각한다. 성관계는 서로에게 친밀감을 주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행위에 임하려 할 때 여성의 몸은 경직된다. 이런 상황은 두 사람 모두에게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결국 여성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화된 순결 이데올로기가 두 사람 사이의 결합을 방해한 것이다.

일단은 내가 너무 경직돼 있었고, 그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을 반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어 했었어요. 그 사람이 사고하는 데는 두 사람이 좋아한다면 성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진 후에 더욱 더 친밀해 질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반응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다음에 서로 안만나게 됐죠. 그 사람하고 그렇게 끝나고 혼란스러웠죠. 제가... 분명히 내가 그런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내가 생각만큼 행동이 못따라갔던 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배반감을 느꼈고 그리고 결과가 또 좋지 않았으니까.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표시를 했어도 됐을텐데 그렇다고 나도 뭐 그렇게 거부감을 느꼈던 것도 아닌데 그렇지 못했던 내 자신이 굉장히 좀 뭐랄까 바보같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이중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성관계를 피할 수도 있었는데 가장 두려웠던 건 그 사람하고 더 오래 가고 싶었고,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례 9>

이 여성은 생각만큼 행동이 따라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배반감을 느끼는 한편 적극적으로 거절을 했어도 될 상황이었음에도 거절을 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 그의 내부에는 자유로운 사고와 보수적인 사고 - 더 오래가고 싶고 계속 만나려

면 성관계를 거절하면 안되겠다는 - 가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다. 즉 표면적으로 여성의 사고가 자유로운 것처럼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보다 강력한 순결 이데올로기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구체적 경험에 직면하기까지는 그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

이처럼 첫 경험은 우연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다. 그런 만큼 경험 이후 여성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경험은 여성으로 하여금 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계기일 뿐이다. 경험 이후의 혼란스런 상황 속에서 여성은 자기 정당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시각을 정립해 나간다. 이 정당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여성의 성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인 것이 될 수도, 아니면 경험 이전보다 더욱 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정당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1-2. 자기 정당화과정

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경험을 하게 되면서 여성들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 의식을 되돌아보고 사고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겪는다.

성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터졌어요. 나중에 호기심이 발생을 했고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해야되겠다 라든가 성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되고... 그런 거는 실제로 그 일이 있고난 뒤부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례 10>

성경험 직후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신 내부에 있던 이데올로기의 혹독한 공격을 체험한다. 극도의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에 길들여진 까닭에 스스로 자신을 일탈자로, 더럽혀진 것으로 낙인찍는다. 여성의 고통에는 부모에 대한 미안함도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점차로 그는 자신의 행위를

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 후 약 2주 정도는 그 하얀 시트에 묻어있던 피가 자꾸 떠올랐고 잠도 잘 못자고 악몽에 시달렸던 것이 생각나. 엄마한테 미안하고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았어. 그 후에 나를 합리화시키지만 그래도 수치스러웠어.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어. 내 자신이 수치스러웠어. 육체적인 번거로움도 있지만 마음이 힘들었어. 공간이 문제가 아니야. 이런 환경(여관) 가운데 들어와서 이런다는게 나 스스로도 용납을 못하는거야. 그런 데를 모르고 자라는 아이이길 바랬거든. 깨끗한 아이이길 바랬던 것 같애. 뜻하지 않게 내 자신을 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별 것 아니라고 마음을 추스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을 할 틈이 없었어. 그리고 사랑은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 성이 그 사랑의 과정 안에 있으면 더 두려움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아. <사례 1>

이처럼 몇날 몇일을 고민하고 나서야 자기 정당화는 이루어 진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순결이란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서서히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성에 대해서 부정적이 됐다가 보다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거에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말도 안되는 행동들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항상 아니다 라고 얘길 해야 되고 그러냐는 생각이 들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사례 9>

즉 자기 정당화 과정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순결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힘겨운 과정들은 순결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것이다. 결국 순결 이데올로기의 현존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자신의 성적인 만족이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이러한 불필요한 과정에 시간과 정력을 집중하게 만든다.

2-2. 여성의 성적 주체성

2-2-1. 남성중심적인 성, 습관적인 성행위

순결 이데올로기가 극복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제 미혼의 성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 첫 번째가 성관계의 습관화이다. 결혼 이후라면 남녀의 성관계가 습관처럼 되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온갖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이루어지는 미혼의 성의 경우 그것은 적지 않은 문제가 된다. 일단 한번 관계를 가지고 나면 남자들의 요구는 일상화되고 여성의 입장에서 한 번 허용한 이상 그것을 거절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횟수가 거듭되면서 습관적으로 되고 기쁨은 줄어. 그것만을 위해서 만나는 것처럼 되는데 싫더라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건 (실제로는) 정육밖에 없잖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내하고 참고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애. 행위 자체가, 육체나 마음도 그렇고 상태에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습관이란 생각이 들어. 생활은 각자 틀리면서 그건 습관적이라는 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 <사례1>

남성에게는 너는 이제 '내 커다'라는 소유의식이 발동을 하고 여성에게는 '이왕 준 것'인데라는 생각이 든다. 여성에게 사랑이나 만남의 습관성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관계에 있어서만은 습관성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된다. 성관계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크고 번거로운 절차 - 여관방을 찾아다닌다든가 남의 시선을 피해야 하고 피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등 -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로 귀찮은 행동이 된다. 특히 여성이 성적 만족을 느끼지 못하거나 남성이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느낄 경우 거부감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감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적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남녀간의 비대칭성이다. 우리에게 성교(sexual intercourse), 성(sex), 성관계

(sexuality)라는 말들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성교'에만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성 문화는 '성관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일상적 언어 사용에서 흔히 드러난다. 남성들은 여성을 소유하려면 "일단 조져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여성은 성기로 축소되는 것이다. 여성들 자신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지닌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여성들 사이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배앓겠다", "당했다", "바쳤다"라는 표현들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황필호, 1989).

이러한 관념적 배경 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에서는 '오르가슴'에의 도달 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만일 그것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것은 실패한 행위가 되며 남성과 여성은 모두 그것에 좌절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형성된 관계는 하나의 의례처럼 지속된다. 이러한 의례가 중단된다면 사랑도 식고 관계도 더 유지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단순 반복적이고 아무런 재미도 없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성관계 속에서 여성의 불만은 커져만 간다.

섹스 하기가 싫어. 행위 자체가 너무 타성적이거나, 특별하게 사실상 별로 필요도 없거나, 아주 일순간의 쾌락같은 거 있잖나. 그건 진짜 일순간이야. 그리고 자꾸 그게 너무 습관적이야. 며칠에 한번 한다는 것이 습관적인 게 아니고 그 행위 자체가 습관적이야. 행위 자체에서 계속 행동이 움직이고 움직이고. 그렇다고 해서 변태같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냐. 그런데 그런 것도 싫고 타성에 젖는 것도 싫어 그냥. 그러고 싶을 때 하고 그러고 싶지 않을 때 안했으면 좋겠어. <사례 2>

위의 사례에서 여성은 '그러고 싶을 때 하고 그러고 싶지 않을 때 안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남성이 화를 낼지도 모르고 상처를 받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 습관화되고 의례화된 성은 계속된다. 뭔가 다른 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전혀 모색되지 않는다.

2-2-2. 수동적인 성관계

대부분의 경우 성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는 것은 남성이다. 여성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욕구가 생길 경우에도 여성은 표현하지 않는다.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여성의 수동적인 태도로 인해 여성은 언제나 남성의 요구를 기다리기만 한다.

영화볼 때 내가 먼저 손 잡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한두번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동으로 잘 안 옮겨지더라. 정말 한두번 그랬어. 근데 그때도 먼저 그렇게 하더라... '내가 먼저 해야한다'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런 생각은 해. 근데 결혼해도 나는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막 하고 싶어도 별로 내색하지 않을 것 같애. 내가 하기 전에 그 쪽에서 먼저 말할 것 같고. 나는 은밀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애. 묻지 않고도 원하는 걸 알아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신경을 안쓰도록. 은밀하고 가끔 충격을 주는 것 있잖아. 그런 떨림, 좋아함 있잖아. <사례 4>

생리를 전후해서 성에 대한 충동이 가끔 생기기도 해. 개와 사귄 건 2년 반 됐는데 먼저 자러 가자고 한 건 두 번 밖에 안돼. 그리고 잘때도 이렇게 해보자 하고 요구한 적은 한번도 없어. <사례 3>

이처럼 여성들은 남성에 대해서 '알아서 잘해줄 것'을 바란다. 그러나 만일 남성이 '알아서 잘해주지' 못할 경우 여성은 욕구불만에 빠지게 된다. 욕구불만에 빠지면 서도 여성들은 끝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국 성적 만족을 포기하게 된다.

재미있는 거는 같아요. 재미있는 것 같은데 여자가 수동적이게 되죠. 수동적이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여자는 별로 재미를 못 느끼고... 남자들이 오히려 더 재미를 느꼈으면 느꼈지. 재미있다고 보다는 그냥 좋으니까 좋다

는 감정 때문에, 그 순간 자체가 좋은 건 아니고. <사례 9>

여성들은 이처럼 순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문제들에 허덕인다. 순결 이데올로기만 없어지면 마음놓고 성을 즐길 수 있으리라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리는 것이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주조된 여성의 성역할이 문제가 된다. 여성을 성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묶어두는 사회통념으로 인하여 여성은 또다시 성적 만족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다시금 여성은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해 '몸을 대주는' 종속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2-2-3. 안전하지 못한 피임 - 임신의 두려움

여성의 성적 자유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가 임신의 문제이다. 성관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남녀가 공동으로 진다고 하더라도 임신은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이 된다. 성에 대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거듭되는 중절의 경험으로 좌절되고 만다.

처음 1년 정도는 섹스를 하는 게 좋았어. 그때까지는. 그때부터 뭐가 있었나면 자꾸 생리가 조금씩 늦어지면서 불안해 지는 거야.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늦어진 적이 있었거든. 근데 되게 불안하더라고. 그때 애의 행동이 굉장히 안 좋았어. 그때 내가 애한테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그랬었다. 나는 날짜를 정확히 잘 모르니까 얼마나 늦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 사실상. 이틀일 수도 있었고 일주일일 수도 있었는데 일주일까지는 아니었을 거야. 겁을 먹었지. 애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맨 처음에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하루이틀이 지났나.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애한테 한번 가보자고 그랬더니 "알았어. 같이 가줄게" 그런 식이야. 되게 화를 냈었다. 내가. 애는 지는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뭔가 나를 거추장스럽다고 여길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았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사례 2>

여성이 무성적이고 무욕적인 존재로 기대되고 또한 성에 대한 관심의 표명 자체가 억압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피임 실천이나 남성에 대한 피임 요구는 매우 어렵다. 여성이 피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성행위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이고 자신이 문란한 여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많은 남성들이 피임기구의 사용을 꺼리기 때문에 자칫 남성에 대한 여성의 피임 요구는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커다란 요인은 무지이다. 임신이나 낙태에 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없이 치뤄지는 성행위는 원치않는 임신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여성에게 떠넘겨지게 된다(임순영, 1991).

사실은 그러니까 개나 저나 성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무지했기 때문에 유산을 두 번 했어요. 두 번째 애를 뱃속에서 뭉개고, 한 여성이 독립해서 사는데 있어서의 사회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처음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직장 다니는 문제, 수술을 하면 그런게 걸리잖아요. 참 번거로운 일이구나 이런걸 느끼게 됐죠.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가지게 됐나면 섹스란게 귀찮은거구나 라고 생각이 변질되고, 또 한번 연애편이 바뀌어질거다라는 예감이에요. 여하튼 여자한테 성관계는 안좋은 거구나. 그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충분히 나눌 수 있는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불안한거죠. 임신공포증 같은 그런거. <사례 10>

낙태의 경험은 여성으로 하여금 성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만든다. 기껏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획득된 긍정적 성 의식은 낙태의 경험을 통해서 원점으로 돌아간다. 더욱이 여성의 임신 사실에 대한 상대 남성의 태도가 부정적인 경우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욱 극대화된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데 대한 분노와 후회만을 여성의 가슴에 남긴다. 그는 또 다시 체념과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이처럼 여성이 주체적으로 성을 사유하고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임신의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2-3-4. 적극적인 성경험

아직은 일부의 경우에 국한된 사례이긴 하지만 지나친 성적 억압에 대한 반발심에서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성행위도 존재한다. 이제까지 논의된 대부분의 성행위에서 여성의 역할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논의될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이끌어간 경우이다. 다음의 사례는 성경험을 한다는 것이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식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고정관념을 깬다는 생각에서 행위를 결심한 경우이다.

내가 좀 비뚤어져 나간다. 비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고 무서운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스릴있고 고정관념을 깬다 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극소수일 거고 그래서 남들이 안하는 걸 한 다라는 생각을 했어. <사례 3>

다소 무의식적 반발에 근거한 위의 사례에 비해 다음의 사례는 보다 의식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경우는 사회 일반의 억압적 성윤리에 대한 저항의 의미와 함께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관념을 부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성경험을 한 경우이다.

대학원 재수 시절에 만난 남학생과 사귀면서 용감무쌍하게 몇 번의 성관계를 가졌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나의 상황은 성욕이나 성충동으로서 보다는 상대를 좋아하면서도 여성에게 주어지는 순결교육과 규범을 그대로 반영하는 성에 대한 인식이 잘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걸 절감하고 있었던 터라, 세상을 향해 '메롱'하는 심정이 더 컸었다.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 내게 더 중요한 의미였다. 나는 내 친구가 혼전 성경험을 해버렸다는 걸로 거기다 종결까지 했다는 걸로 얼마나 아파하며 살았는지 또 그 극복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애

와는 다르게 받아들이리라 생각했다. 한계를 넘는 이러한 행동은 내 주장의 시작이었다(김영선, 1991).

여성이 성경험을 하거나 성적 주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일탈적인 것이다. 특히 임신을 하거나 미혼모가 되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사회로부터의 소외라는 형벌이 내려진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할 때 위에 인용된 사례의 여성은 매우 용기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보았듯이 성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밀어닥치는 난점들은 겹겹이 쌓여 있다. 단순히 의식적으로 성관계를 시작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의 해결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당차게' 시작된 성관계의 경우에도 남성의 성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를 경험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여성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처녀성을 버리려 할 만큼 억압되고 뒤틀린 사회에서 성관계가 여성에게 만족을 줄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둘의 관계가 평형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관계 또한 그러했다. 내 감정과는 상관없는 그 애 혼자만의 일방적인 관계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 좁은 금방 느낄 수 있었다. 오히려 외롭고 가슴만 병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성관계를 해보았으면서도 한 게 아니었다(김영선, 1991).

이제 그는 성은 서로 간의 평형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랑이 바탕해 있어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혼전 순결이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불평등한 사회적 장치의 일환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과 주고 있다. 95년 11월 25일 SBS-TV에서 방영되었던 "핫라인 - 70분의 선택"은 여성의 변화된 의식구조를 잘 보여준 바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혼전순결 지켜야 한다'라는 문항을 놓고 시민들에게 찬반 여부를 질문

해보았는데, 그 결과 찬성의 비율이 남성 60.1%, 여성 40.4%로 여성 중에서 오히려 혼전순결을 지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저항의 방식에는 직접 성경험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성이 자신의 성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다. 이것 역시 사회적 금기를 깬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저항 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음에서 인용될 사례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¹²⁾. 다음에 인용된 여성의 목소리는 성경험이 곧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성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우리가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상대와 결혼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M(여성)과 나는 그런 상대와 지금은 헤어졌다. K는 두번째로 성관계를 가졌던 남성과 아직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결혼을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K는 첫 경험을 가졌던 상대와는 헤어졌다. 나와 M 그리고 K 모두 결혼을 상정한 성관계를 가지지만, 그것이 꼭 결혼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문제가 있을 때에 헤어질 수 있는 용기가 있다. 또한 오래된 연인들의 관계 변화를 위해서 성관계가 차지하는 요소는 서로의 정신적인 합일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관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금기시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이에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몸짓으로 성관계를 받아들인다(이민화, 1993).

성관계 이전에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은 사랑과 책임의식에 기반한 '가벼운' 성의

12) 이러한 사례들로는 이재경·김영미(1993)의 『주부가 쓴 성 이야기』나 김별아(1995)의 소설 『내 마음의 포르노 그래픽』, 그리고 송경아(1995)의 소설 『성교가 두 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중 사례연구 부분 인용』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식이다. 이 때의 가벼움은 지나치게 과장되고 술한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그 무거움에 대한 반대의 의미이다. 위의 인용문은 성이 정상적인 삶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러 경험을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성이 억압되어 있는 사회, 성적 욕구를 깨닫고 성적 지식을 아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시대, 그리고 그러한 의식들로 인해 괴로움을 여성들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은 성이 자유가 아니라 무엇보다 힘겨운 구속임을 깨닫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힘겹지만 솔직한 목소리들은 문제를 함께 풀어갈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여성의 성적 주체성 확보는 성 의식의 변화에서 우선적으로 찾아져야 한다. 성에 대해 우선 알아야 하고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수용이나 거부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란 모든 종류의 권위와 독단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점에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움아매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들로부터의 해방은 인간의 자유를 향한 여정에 있어서 중대한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보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에 대한 일체의 맹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의 틀과 새로운 학습방식이다(이상화, 1991).

이러한 새로운 계몽의 과정은 우리의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다. 그 예의 하나가 대학에서 빈번하게 열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토론회이다. 이것이 굳이 여성학 또는 성 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론회 자체는 진보적 의식의 교류를 가능케 함으로써 참여자들 스스로 모든 형태의 억압에 대한 감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만든다.

여성학을 들었다기보다 그냥 씨름에서 공부하고 사회과학 책보고 그러면서 진보적인 문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거부감을 느꼈고,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반발심 같은 거였죠. 반발심 같으면서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사람들이 순결으로써 강요되는, 여자들에게만 강조되는 그런 무게감, 그런 것이 싫었고. 안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저랑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사례 9>

이러한 토론 문화와 접촉해 본 여성들은 학교 바깥으로까지 그런 문화의 긍정성을 확대해 나가기도 한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토론적 진지함을 유지함으로써 단순한 '수다'나 소극적인 우스개가 아닌 성담론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다. 다음 사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교환하는 과정은 자신의 성 의식을 돌아켜보고 새로이 의식을 정립하는 계기로 기능하게 된다.

친한 친구랑은 테크닉까지 얘기해요.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솔직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신뢰가 있고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한 번 자기경험을 이야기 해보자 하니까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언니들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선입견이나 그런게 없어지는 걸 느껴요.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테크닉도 듣는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진 성관계와 아닌 경우의 성관계는 정말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거부감이 없어지는 것 같애. <사례 5>

이 논문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 바와 같이 남녀 차별적인 성 문화는 여성들의 행동을 끊임없이 위축시킴으로써 그들의 행동이 주체적으로 되는 것을 저지한다.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곤란에 대해서 이 절에서 논의된 몇몇 사례들은 훌륭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들은 올바른 성 의식과 올바른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 의식이다. 이러한 성 의식은 성에 대한 지식에 일차적으로 의존한다. 진지한 토론과 세심한 탐구, 그리고 자신의 경험 등을 통해 도달한 성 지식을 통하여 여성은 자기의 몸과 성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럼으로써 이제 성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남녀의 관계가 마치 꽃갑과 같다고 생각했어. 맛있는 걸 아금아금 빼먹는. 나는 경험이 있었고 지금 내 남자친구는 내가 처음이었어. 그래서 나는 자제할 수가 있었지만 그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어. 그래서 그래 너도 꽃갑 맛 좀 봐라. 그래서 같이 잤어. 이제 개도 어느 정도 알았고 자제력도 생긴데다가, 자러 갈 수 있는데가 변하고 나올 때는 민망하고 해서 결혼할 때까지 참자고 했고 개도 동의했어. 아무튼 경험 이후 성에 대해 알게 되고 나서 상대의 요구나 남성의 심리에 대해 더 잘 알게 된거야. 알고 나면 겁도 없어지니까. <사례 1>

(처녀막은 상관안해요?)

네 우스운 얘긴데 없으니까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하게 되는 거 같아요. 어렸을 때 생각하기에 지나가다 강간범을 만났다면 어떻게 할까 처녀막도 없어지고 나중에 첫날 밤에 남편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되나, 그런 걸 혼자 어두운 길을 가면서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만나기만 해 년 죽었다. <사례 9>

경험이 주는 의미는 경험을 통해 성에 대해 알게 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점에 있다.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한다.

“나는 한번씩은 깨져야 할 것 같거든. 남자든 여자든 그런 게 한번씩 깨지면 자기를 다시 정립하는 것 같애. 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 해보는 게 괜찮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 번 해 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사례 2>

이처럼 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은 성에 대한 여성들의 지나친 거부감이나 놀라움을 줄여줄 수 있다. 사실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성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르쳐주는 것이며 이야기를 통해 성 지식과 성 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1990년대의 한국이라는 매우 독특한 조건 속에서 여성들의 성 의식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며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연구의 초점은 여성의 성이 자신의 경험을 매개로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 맞추어졌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순결 이데올로기라는 사회문화적 힘이 여성의 성장과정에서의 경험과 관련하여 강화 또는 약화되는 과정과 그 속에서 여성이 성의 지식화를 달성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성 지식의 형성과정은 금기시된 성 문화, 그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금기시된 성 문화에서는 성교육의 내용과 그것을 통한 성 억압의 내면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여성에게 행해지는 성교육은 한마디로 순결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을 듯하다. 왜냐하면 초기 사회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성에 대한 관심의 억압과 남녀가 다르다는 차별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교육은 삶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학습되어 여성의 의식 속에 내면화됨으로써 여성 스스로 욕구를 억압하도록 작용한다.

내면화된 순결의식은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에 대한 성적 접근을 막고 그 대신 흡모하는 방식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든다. 즉 여성은 예로터한 분위기에 부합되는 낭만적인 사랑만을 꿈꾸도록 길들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성적인 자극이 몸을 통해 전달되어도 여성은 그것을 신비한 어떤 것으로 바꾸어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순결의식은 또한 여성의 몸에 대한 부정적 내면화와 성추행이라는 부정적인 성경험을 매개로 강화되기도 한다. 순결교육을 통해 여성에게 주입된 피해 의식이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확인되면서 순결의식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란 여성들은 성장의 어느 단계에서 동료와의 이야기를 통해 성에 대한 지식을 형성할 기회를 갖게된다. 특히 대학이라는 공간을 통해 접하게 되는 새로운 정보와 사고는 여성의 순결의식을 완화시키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여성학 서적이거나 영화와 같은 매체를 접함으로써 개방적 사고의 형성과 성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

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애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 이전에는 무관심했던 이들이 자신의 일로 비중있게 대두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순결에 대한 부모의 설교는 본격화된다. 부모가 재산이 많거나 조건이 좋은 맞선자리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을 경우, 결혼과 분리된 성관계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 경우에 여성들은 부모나 사회가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인간의 스테레오 타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의 모든 행동을 그러한 도덕적 삶의 기준 아래에 두게 된다. 이들에게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통해 만족감을 얻는다. 순결을 지키는 것은 일종의 자기관리이며 결혼을 위한 투자 또는 밑천인 것이다.

오랜 연애편이를 거치고도 성행위를 유보한 경우는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손익 계산이 서 있는 경우이다. 이들은 처녀성에 대한 사회의 욕구를 철저히 수용하며, 종교를 비롯한 온갖 포장물로 자신의 계산을 정당화한다. 이들은 성이 결혼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들의 경우에 한정되는 일일 뿐이다. 그들은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안전한 가치만을 따름으로써 피해를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들이 성행위를 유보한 또 다른 요인에는 영화를 비롯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혼전 성경험으로 피해당한 여성들을 자주 접하게 되었다는 점도 있다. 팔라진 연애로 인해 친구들의 잦은 헤어집을 보거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은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강화한다. 친구들과의 이야기는 대개 문제에 대한 상담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정상·비정상의 구분에 입각하여 성경험을 '일탈'로 규정하는 성 문화 속에서 혼전 성관계자는 일탈자로 낙인찍히면서 소외되게 된다. 이처럼 이들 주변의 성 담론 중에서 혼전 성관계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거나 그것을 부추기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순결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을 더욱 견고하게 형성하는 것이다.

여성의 성경험은 대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경과한다. 처음 성행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개 상대 남성의 유혹이 촉발요인이 된다.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사랑하면 잘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여성들도 쉽게 결정을 못내리고 깊은 고민에 빠져든다. 대부분의 경우는 경험 이후에 자기 정당화 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을 통해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에는 피임에 관한 무지나 실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신과 중절을 경험하며, 결국 '자유로운 성'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성경험이 있다고 해서 이들이 순결 이데올로기를 떨어버린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순결 이데올로기는 변형된 형태로 이들의 삶은 다시 옥죄기 시작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 번 잤는데 두 번, 세 번은 못자겠느냐'는 '한 번의 신화'이다. 이는 성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이미 더럽혀졌다는 자포자기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이들에게는 분위기를 봐 가면서 자신의 경험을 숨기거나 아무 것도 모르는 척 연극을 꾸며야 하는 부담도 주어진다. 결국 이들 역시 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막나가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기를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여성들은 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사회적 도덕규범인 순결을 내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 통념의 벽은 너무나 단단하여 개인의 행동과 의식을 제압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들도 자기 애인은 처녀이기를 바란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듣게 됨으로써 성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피해의식은 더욱 극심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여성의 성적 주체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의 사회화 과정에서 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강하거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고 억압할수록 여성들은 성을 자연스럽게 사고하지 못하게 된다. 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여기는 경우라도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인간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이 지속적으로 주입되는 경우에는 성행위에 대해 한정된 선을 긋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자신이 성행위의 수용이나 거절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들은 순결의 유지가 전적으로 남성의 자제 여부에 달려 있다고 믿음으로써 자신의 몸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포기해 버린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언제나 상대방에게 미안한 감을 느끼게 된다.

반면 진보적인 문화에 접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순결 이데올로기의 영향은 약해지며 성에 대한 자유로운 의식을 가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자유로운 성 의식의 형성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문화 중에서도 자유로운 토론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토론과 함께 자유로운 성 의식의 형성에 기여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자신의 직접 경험을 꼽을 수 있다. 미혼 여성이 성 체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위험 부담을 지니게 되는 한국적 상황에서 여성은 성경험을 거치면서 비로소 성에 대한 사고를 재구성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이러한 계기를 시작으로 하는 의미부여 과정을 통해서 여성은 새로운 시각으로 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물론 앞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성경험이 임신이나 남성의 배신과 같은 부정적 계기들을 포함하는 것일 경우에는 새로운 시각의 형성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는 이상에서 여성이 자신의 성적 주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을 사회적으로 부과된 순결 이데올로기와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위에서 논의된 유형들 중에서 부정적 유형들 - 순결 이데올로기에 굴복하는 유형, 성적인 수동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유형 등 - 이 여성들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본 연구를 위해서 접해본 여성들은 대개가 부정적 유형들에 속하고 있었다.

남녀 모두에게 허위의식만을 심어주는 성교육, 여성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 성기 중심적이고 일방적인 성관계 등 여성의 성적 주체성 확립을 강력히 저지하는 환경 속에서 여성의 대부분이 부정적 유형에 속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 될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여성의 성적 주체성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환경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탐구하는 일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그것의 출발점으로 '성에 대한 알'을 제시한다. 현재 여성을 억

누르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성의 성적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이미 본문에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무지로부터 탈피함으로써만 여성은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고 자신이 주체가 된 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알은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공미혜(1993), '은폐된 성, 과장된 성: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연구', 『여성연구논집』, 제 4집, 부산여대 여성문제연구소.
- 김명숙(1992), '성의식의 남녀차이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논문.
- 김별아(1995), 『내 마음의 포르노그래피』, 도서출판 답게.
- 김애령(1995), '지배받는 몸, 자유로운 몸, 다시보는 여성의 몸', 『여성과 사회』, 제 6호, 한국여성연구회, 창작과 비평사.
- 김영선(1991), '따뜻하고 정겨운 성', 『또 하나의 문화』, 제 8호.
- 김은실(1991), '발전논리와 여성의 출산력', 『또 하나의 문화』, 제 8호.
- 김은영(1990), '한국인의 성 고정관념에 대한 조사연구', 이화여대 사회학과 석사논문.
- 김은자(1978), '대학교 남녀학생의 특성에 따른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의 실태와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연세대 간호학과 석사논문.
- 김정희(1991), '여성의 혼전 성관계 정서분석', 『또 하나의 문화』, 제 8호.
- 김준호·김은경(1994), '음란물의 유행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 음란 비디오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혜련(1993), '여성의 이혼경험을 통해 본 가부장적 결혼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 김효선(1992), '임신한 여성의 눈으로 본 사회 - 여성과 몸', 한국 성폭력 상담소 편, 『일그러진 성 문화 새로보는 성』, 동아일보사.
- 남상희(1990), '권력, 성, 그리고 노동', 연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금산(1982), '성숙도에 따른 성과 결혼생활에 대한 미혼여성의 실태조사 - 직장여성과 대학생 간의 비교 연구', 이화여대 가정교육학과 석사논문.
- 서현숙(1992), '기혼여성의 성통제에 관한 사례연구: 성에 대한 성경험과 인식 - 피임 인공유산을 중심으로', 계명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 심영희(1989),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통제', 『한국여성학』, 제 5집.
- 양난주(1994), '동거는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 - <추적 60분> 동거 조작 방송파문, 그현장을 가다.', 『월간 사회평론 길』, 1994년 6월호.
- 이경미(1995), '성의 자율성과 순결 이데올로기 - 20대 여성의 사례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 이명선(1991), '성충동과 성의 각본', 『또 하나의 문화』, 제 8호.
- 이상화(1988), '생물학적 재생산과정의 변증법', 『한국여성학』, 제 4집, 한국여성학회.
- (1991), '환상과 신화로부터의 해방', 『또 하나의 문화』, 제 8호.
- 이숙경(1993), '미혼여성의 성에 관한 연구 - 낙태행위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 이영자(1989), '성일탈과 여성', 『한국여성학』, 제 5집.
- 이원영(1991), '우리집의 성교육', 『또 하나의 문화』, 제 8호.
- 이재경(1993), '국가와 성통제', 『한국여성학』, 제 9집.
- 이재경·김영미(1993), 『주부가 쓴 성이야기』, 지성사.
- 임순영(1991), '기혼여성의 인공유산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장경순(1989), '대학생 성 역할 정체감과 사회문화적 성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부산대 교육학과 석사논문.
- 장필화(1989), '성에 관련한 여성해방론의 이해와 문제', 『한국여성학』, 제 5집, 한국여성학회.
- (1991), '성, 사랑, 결혼에서 주인되기', 『또 하나의 문화』, 제 8호.
- (1992), '몸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한국여성학』, 제 8집, 한국여성학회.

- 장필화·조형 (1991), '한국의 성문화: 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 8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 정경자(1990), '피입광고를 통해서 본 성문화 일고찰 - 푸코의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 정대현(1988), '성문화의 오늘과 내일', 『또하나의 문화』, 제 4호.
- (1991), '사랑의 미신', 『또하나의 문화』, 제 7호.
- 정성채(1981), '여고생들의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조규연(1980), '우리나라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단국대 가정관리학과 석사논문.
- 조혜정(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 (1991), '결혼, 사랑, 그리고 성', 『또하나의 문화』, 제 7호.
- 주부생활(1995), '남녀 대학생과 30대 기혼남녀가 털어놓은 섹스, 섹스북 - 순결이나 동정이 도덕성의 기준인가', 『주부생활』, 1995 9월호.
- 최신덕(1975), '한국 남녀대학생의 데이트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논총』 29집, 이화여대 문화연구원.
- (1980), '계층별로 결혼행동에 나타난 여성역할', 『논총』 36집, 이화여대 문화연구원.
- 추애주(1991),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하나의 문화』, 제 8호.
- 현실문화연구(1993),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현실문화연구.
- (1994), 『섹스 포르노 에로티즘: 쾌락의 악몽을 넘어서』, 현실문화연구.
- 홍준숙(1987),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가정관리학과 석사논문.
- 황은자(1993), '성교육 지침서 분석을 통해본 성 이중성', 『한국여성학』, 제 9집, 한국여성학회.

2. 외국문헌

- Amendt, Gunter(1970), *Das Sex Buch*, Elefant Press, 이웅숙 옮김(1995), 『섹스북』, 박영출판사.
- Badinter, Elisabeth(1992), *XY, De l'identite masculine*, 최석 옮김(1993), 『XY 남성의 본질에 대하여』, 민맥.
- Buss, David M. (1994), *The Evolution of Desire*, Basic Books, 김용석·민현경 옮김(1993), 『욕망의 진화』, 백년도서.
- Donzelot Jacques(1979), *The Policing of Families*, New York: Pantheon Books.
- Foucault, Michel(1973a), *L'ordre du discours*, Gallimard, 이정우 옮김(1992), 『담론의 질서』, 새길.
- (1973b), *Histoire de la Sexualite - I*, 이규현 옮김(1991), 『성의 역사 1』, 나남.
- Frischauer, Paul(1974), *Knaurs Sittenges Chichte der Welt*, 이윤기 옮김(1992), 『세계풍속사』, 까치.
- Fucks, Eduard(1912), *Illustrierte Sittengeschichte vom Mittelalter bis zur Gegenwart: Dass Buegerliche Zeitalter*, 이기웅·박종만 옮김(1986), 『풍속의 역사 I-IV』, 까치.
- Gryl, Frances E. & Samdera M. Stith & Gloria W. Bird(1991), 'Close Dating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Differences by Use of Violence and by Gender',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 8.
- Jacobus, Mary, & Keller Evelyn Fox & Shuttleworth Sally(1990), *Body/Politics - Women and The Discourses of Scien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Marcuse, Herbert(1968), *L'homme Unidimensional*, Paris: Editions.

Millett, Kate(1970), *Sexual Politics*, 정의숙·조정호 옮김(1976), 『성의 정치학』, 현대사상사.

Nagel, Thomas(1975), 'Sexual Perversion', Robert Baker & Frederick Elliston, *Philosophy & Sex*, Prometheus Books.

Plummer, Ken(1982), 'Symbolic Interactionism and Sexual Conduct: An Emergent Perspective', M. Brake(ed.), *Human Sexual Relations*, New York: Penguin Books.

Reich, Wilhelm(1978), *The Mass Psychology of Fascism*, 오세철·문형구 옮김(1987), 『파시즘의 대중심리』, 현상과 인식.

Reinharz, Shulamit(1992), *Feminist Methods in Social Resear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ubin, Gayle(1984), 'Thinking Sex: Notes for a Radical Theory of the Politics of Sexuality,' in Carole S. Vance(ed), *Pleasure and Danger: Exploring Female Sexuali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Smith, Dorothy E.(1987), *The everyday world As Problematic - A Feminist Society*,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Solomon, Robert(1975), 'Sex and Perversion', Robert Baker & Frederick Elliston, *Philosophy & Sex*, Prometheus Books.

Weeks, Jeffery(1985), *Sexuality and Its Discontent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6), *Sexuality*, Tavistock Publications, 서동진·채규형 옮김(1994),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현실문화연구.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Woman's Sexual Identity

- Consciousness Formation through Sexual Experience -

Cho Yoon-Jung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construction process of women's sexual identity in Korea, 1990s. More concretely,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women's sexual consciousness through her sexual experience.

The research method applied in this study is in-depth interview. Because main interest of this research is in individual's consciousness. The interviewees were women in the age of 20's and who are university students or graduated. The reason why these kinds of women are selected is they are in a state relevant to the theme of this study, that is, they begin to consider her own sexuality, love and marriage.

This study 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part is concerned with the knowledge formation process of women on sexuality, and the

second is concerned with the process of women's sexual identity formation through her sexual experience. In the first part, I dealt with the factors which influence woman to have negative attitude toward sex. And in the second part, I analyzed the process of which woman comes to convert her negative attitude to sex into positive one through sexual experience.

The internalized ideal of virginity always prevents woman from thinking of man as a sexual object. Her sexual desire is satisfied in the form of romantic love, not sex itself. In the course of growing, woman is likely to recognize sex negatively. The two major factors impact on this recognition are education and experience. In education she is always taught sex as a dirty and guilt thing. Her belief of sex is dirty, which come from this education, is usually reinforced by her experience of sexual harrassment in her child days.

There was different type of identity formation process found between two categories of women; women who have sexual experience and would not have it before marriage . Woman who would not have sex before marriage tends to conform to the moral requirements of society, that is, woman should keep virginity before marriage. So she seems simply to satisfied with the fact that she obeys the norm and acquires good reputation. But in general her behavior is caused by sly calculation of profit and loss.

In the case of the women who have sexual experience, they usually gets into great confusion right after the first experience. Because there is a terrible conflict between what they have done

and what they should do. But by the self-justification during that period of confusion, women generally reach new stage of cognition. Now these women converts their negative view on sex into positive one. However, this is not the completion of women's sexual autonomy. New stage cause new problems such as passive or ritualistic sex and problem of contraception.

As a consequence, the conflict between woman's consciousness and behavior will become more serious if existing oppressive situation to women remains unchanged. Therefore, we can reach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woman's identity through finding and breaking the factors those block it.

Key Words: Ideology of Virginity, Internalizing process,
Sexual Consciousness, Sexual Experience, Sexual
Identity